

# 리아호나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낙관, 사랑, 비전의  
선지자, 22쪽**

질문을 하는 목적  
이해하기, 14쪽

교리와 성약: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16쪽

홀로 서야 할 때 용감하라, 28쪽



저명한 후기 성도 사진 작가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이 1907년에 찍은 사진. 이 사진은 근처 숲에서 일어났던, 영원을 두고 종대한 사건인 첫번째 시현과 매일의 일상을 대조적으로 표현한다. 뉴욕 주 팰마이라 근처의 성스러운 숲에서 열네 살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방문을 받았다.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4

###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정중앙을 겨누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상호부조회의 목적



표지  
앞표지 사진: 조지 프레이.  
앞표지 안쪽 사진: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뒤표지 안쪽 사진:

### 특집 기사

- 16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교리와  
성약에서 얻는 통찰  
노먼 더블유 가드너  
잃어버렸던 진리가 회복의 과정에서  
계시되었고, 이를 담고 있는 교리와  
성약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 22 고든 비 힝클러: 낙관과 비전의  
선지자  
앤드루 디 올슨  
교회의 제15대 회장이었던 고든 비  
힝클러는 낙관,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었다.

- 28 구주에 대한 간증에 공감하여  
크리스토펠 골든 장로  
힘든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형성하는  
순간이다.
- 34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진정한 명철은 연구와 기도와와 상호  
연관성, 봉사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온다.

### 교회 본부 기사

- 8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 교회가  
지상을 가득 채우리라고 믿는다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엄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레온지나 아다메스 데 우브리
- 14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토론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테드 반스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범리적 대화  
휴 비 브라운 회장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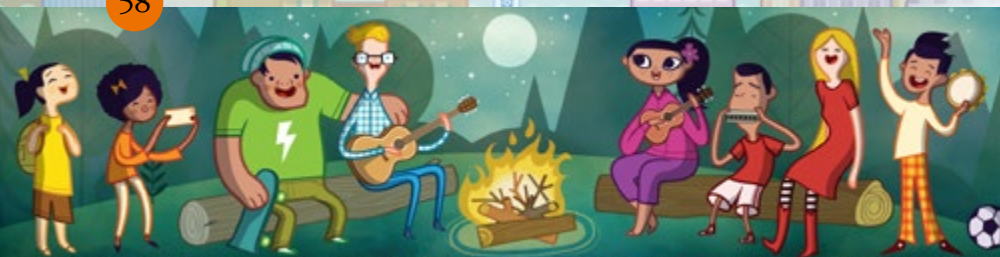
44 선지자가 전하는 충실함의 원리  
시 스코트 그로우 장르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들은 미래에 여러분이 충실히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58



50 201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야고보서 1:5~6

스티븐 더블유 오언 및 보니 엘 오스카슨

53 포스터: 구하라

54 기도할 때 얻는 다섯 가지 약속  
칼리사 크래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 이상이다. 기도가 불러 오는 몇 가지 다른 축복들을 소개한다.

56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문해 볼 다섯 가지 질문

마거릿 윌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힘들겠지만 여기 나온 몇 가지 질문을 자문해 보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58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하나님께  
구하라.

닉 데이

61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야고보서 1:5~6

62 천상의 순간  
홀리 메건 로라 헌터  
이런 순간에는 천국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63 우리들 공간

64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복음을 나누는 방법  
엠 러셀 벨라드 장르

65 해답을 찾아서: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76



66 교회 역사 읽기표: 회복

69 사도들의 답변: 하나님 아버지가 제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실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르

70 우리들 이야기

71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르  
읽을 만한 양서를 찾다가 물문경을 발견했고, 그 책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72 민준이는 충분히 합당해요  
켈리 헌세이커  
민준이는 흠이 물어 터러워 지고 젖은 채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74 에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  
줄리 코닐리어스-황  
카리는 오빠가 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소식에 슬펐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킴 웨브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예요

2017년 1월호, 제54권, 제1호  
리아호나 1444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바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어사도 정원화:** 라셀 엠 벨스, 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얼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텐스,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인:**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예쉬톤,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라스 디 홀스, 에릭 더블유 코우퍼슨, 레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예번즈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메간 사이츠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링, 살렛 리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그, 조슈아 제이 퍼거, 쟈 펜보로우, 리처드 엠 톨니, 민디 덴 셀루, 폴 벤덴버그, 머러사 윌슨

**편집 인턴:** 마거릿 엠 윌든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폴린 힐클리프,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레드, 스킵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콘호츠

**디자인 인턴:** 엘리사 존슨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케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어데어, 콘나 바숄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낄스, 가일 타데 러퍼터, 데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거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0호, 제54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1월 1일 (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체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mailto: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http://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 (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어, 마살어, 말가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말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들은 (교회 부를 수행을 포함하여) 개인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anuary 2017 Vol. 41 No. 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구주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여”**, 28쪽: 골든 장로가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어렵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을 마주할 때 그 순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다. 가족 구성원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역할극으로 나타내 본다. 예를 들면, 숙제를 베끼게 해 달라는 반 친구의 말을 거절하는 상황이나, 친구에게 깨끗한 언어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을 연습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구주에 대해 강한 간증을 키우면 어떤 면에서 더 잘 준비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69쪽: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응답이 예상했던 방법대로 왔는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왔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일지에 기록하도록 서로 격려해 본다.

##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의 음성 녹음본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facebook.com/l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들을 보고 나눌 수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41, 63

간증, 22, 28, 44, 64

개인의 가치, 72

경전 공부, 34, 43, 66, 71

계명, 4, 28, 76

교회와 성약, 16, 66

교회 역사, 10, 16, 28, 34, 66

기도, 34, 42, 50, 53, 54, 56, 58, 61, 71, 74

물문경, 71

사랑, 4, 22, 76

상호부조회, 7

선교 사업, 10, 34, 63, 64, 71

선지자, 22, 80

선택의지, 44, 74

성신, 42, 54, 62, 64, 74

성약, 44

성전, 12, 22, 44, 62, 63, 70

순종, 44, 61

신앙, 12, 22, 34, 44, 50, 53, 58, 61, 72, 80

신화, 16

여성의 본분, 40

영원한 가족, 12, 41, 44, 63, 79

예수 그리스도, 4, 16, 28, 34, 70, 76

외설물, 44

용서, 54, 65

우선순위, 43, 44

우물증, 65

재림, 10

조셉 스미스, 10, 16, 28, 34, 66, 71, 80

질문, 14, 56, 58

평화, 54, 62

회복, 16, 6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정중양을 겨누십시오

**최** 근에 저는 양궁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활과 화살을 능란하게 다루려면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사실을 보기만 해도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빈 벽에 대고 활을 먼저 쏜 뒤 활이 꽂힌 자리를 중심으로 과녁을 그려 넣는 식으로는 실력 있는 활잡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명성을 얻으려면, 과녁을 겨냥하여 정중양을 맞추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 목표 정하기

활을 쏜 다음에 과녁을 그려 넣는다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는 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곤 합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복음의 프로그램과 여러 사안을 다룰 때, 심지어 교리를 다룰 때도 때때로 흥미롭고 중요하며 재미있어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목표를 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의 정중양을 겨누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훌륭한 권고와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다양한 출판물과 지침서, 교재에서도 인도와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제일 좋아하는 복음 주제를 골라서 그곳을 정중양이라 여기고는 복음의 핵심을 찾았다고 합리화합니다.

## 구주께서 밝히신 것

이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그 계명들을 분류하고 순위를 정하며 논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종교학자들이 구주를 논쟁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답이 나와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구주의 생각을 여쭙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익히 알듯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주께서는 목표만 보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정중양이 어디인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 목표에 적중하기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이 성약에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기르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을 굳게 증거하고자 힘써야 함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 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이 그분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회개의 길로 걸어가라는 영감을 주며, 이 회개의 길은 용서가



냥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연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 그 이상을 보는 법을 배워 갈 것입니다. 죄와 단점, 결점, 정치 성향, 종교적 신념, 국적, 피부색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고 판단하려는 유혹을 이겨 낼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즉 우리의 형제 자매로 볼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타인에게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할 것입니다.<sup>2</sup>

그리고 복음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sup>3</sup>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좋은 것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르고 타인에게 정성을 쏟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찾아 정중양을 조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

주

1. 마태복음 22:36~40.
2. 모사이야서 18:9 참조.
3. 마태복음 22:40 참조.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 메시지를 나누기에 앞서 “Our Savior’s Love”(Hymns (영어 찬송가), 113장)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방문 대상자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해도 좋을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항상 우리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한다.(마태복음 22:37, 39 참조)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그렇게 하여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해도 좋다.

삶을 바꾸는 미소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목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언급한다. 하지만 다른 이를 사랑하기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이 힘겨운 탓에 타인과의 교류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친구와 가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느꼈던 사랑을 떠올려 보자. 그때 느꼈던 기쁨을 떠올리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랑을 느낄 기회가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그분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자.

지금껏 같이 어울리기 힘들었던 친구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그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머지않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인 그들에게 그분께서 어떤 일을 베푸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자! 상호 항상 모임 활동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에 그 친구를 초대하거나, 과제를 도와주겠다고 해 본다. 웃으며 짧게 “안녕”하고 인사를 건넬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일들이 여러분과 친구 모두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어린이

명중!

**우** 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복음이 활쏘기 연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겨누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면 언제나 한가운데를 맞힐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과녁에 화살을 그려 넣으세요. 좋은 행동이 아닌 과녁은 X로 표시하세요.





# 상호부조회의 목적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신앙,  
가족,  
구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버튼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이 “여성들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sup> 우리는 신앙, 가족, 구제를 통해 “이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sup>2</sup>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상호부조회는 “현세적이고도 영적인 사업”이고, “그 일은 바로 구주의 시대에 여성이 했던 일이며,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는 일”이라고 말한다.<sup>3</sup>

물동이를 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고 말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나(요한복음 4:6~42 참조), 평생 남을 위해 기쁘게 봉사했던 뱀피의 모습에서(로마서 16:1~2 참조) 우리는 구주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던 여성들의 모범을 접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주신다.(요한복음 3:16 참조)

1842년,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 사라 킴벌의 집에 모였던 일리노이 나부의 개척자 여성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시어 신권과 긴밀히 연결되게 하고자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다. 조셉 스미스는 엘리자 알 스노우가 작성한 회칙을 검토했다. 그는 여성 조직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교회의 조직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자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하셨으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신권 방식을 좇아 신권 권능에 따라 여성들을 조직할 것입니다.”<sup>4</sup>

“상호부조회는 단지 세상에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단체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이 단체는 신권 권세에 따라 조직되었기에 ‘더 좋은 것이었다. 이 단체를 조직하는 일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sup>5</sup>

### 추가 성구 및 자료

교리와 성약 25:2~3, 10; 88:73;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

### 주

1. Linda K. Burton, in Sarah Jane Weaver, “Relief Society Celebrates Birthday and More March 17,” *Church News*, Mar. 13, 2015, [news.lds.org](http://news.lds.org).
2. Linda K. Burton, in Weaver, “Relief Society Celebrates Birthday.”
3. Carole M. Stephens, in Weaver, “Relief Society Celebrates Birthday.”
4.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1~12쪽.
5.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쪽.



### 생각해 볼 점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역할을 성취하는 데 상호부조회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 또한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여성들을 영생으로 이끄는가?

#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오** 늘날 자주 듣는 표현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맞지만,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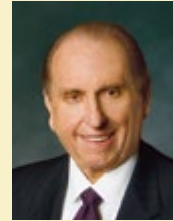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죄 중에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앰올레크가 지에즈롬에게 한 말, 즉 구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죄 중에 구원하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앨마서 11:37]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물론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 즉 그분의 사랑의 궁극적 표현인 그 고통당하심의 목적은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을 배웁니다.[앨마서 34:15] ...

그렇기에 회개는 그분께서 매우 비싼 값을 치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8쪽.

### 선지자의 약속



####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나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누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제 모든 영혼과 겸손한 마음을 담아 간증합니다. 그것은 이곳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완벽한 길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행복으로 향하는 완벽한 길”,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0~81쪽.



##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

**“위**대한 치유자이신 구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생긴 슬픔을 영원히 덜어 줄 권능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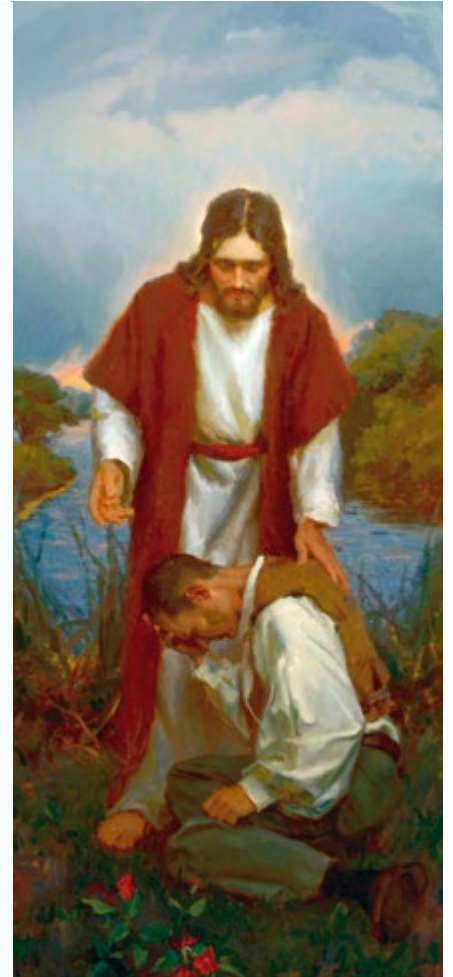
...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상 생활의 현실', 곧 재난, 정신 질환, 질병, 만성 통증, 죽음 등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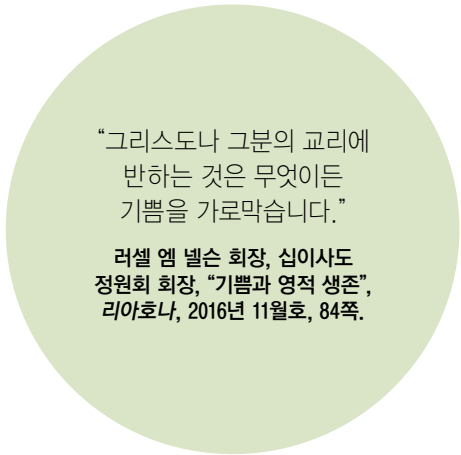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터인즉.’[제3니파이 9:14]”

캐를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위대한 치유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0, 11, 12쪽.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 마이클 티 맘



“그리스도나 그분의 교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4쪽.

## 와서 그분을 따르십시오

몇몇 연사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우라고 권고했고, 또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주를 기억하도록 격려했다. 2016년 11월호를 활용하거나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말씀을 읽어 본다.

-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가? — 로버트 디 헤일즈,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와서 나를 따르라’”, 22쪽 참조.
- 나는 어떻게 더 나은 가정 복음 교사가 될 수 있는가? — 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의 대표자”, 61쪽 참조.
-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더욱 진실하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 딘 엠 데이비스,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 93쪽 참조.
- 어떻게 하면 성찬을 더 의미 있게 취할 수 있는가? — 피터 에프 웨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85쪽 참조.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 교회가 지상을 가득 채우리라고 믿는다

**18** 30년 미국 뉴욕 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우리 교회가 조직될 당시, 교회의 회원은 고작 여섯 명뿐이었다. 그 후로 교회가 성장하여 이제 회원은 1,550만 이상으로 늘었고, 150여 개 국가에 와드와 지부가 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온 지상을 채우리라는 구약전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다니엘 2:31~45 참조) 여기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로 묘사되어(다니엘 2:45), 이 일이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임을 나타낸다.

비록 교회의 영향력이 지상에 널리 퍼진다 해도 여전히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다. 이 사실을 예견한 니파이는 우리 시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양의 교회를 본즉, [주위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적더라.”(니파이전서 14:1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고 “후기 성도가 되는 것은 갈수록 인기 없는 일이 될 것”이다.<sup>1</sup>

그러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린양의 교회 또한 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다.(니파이전서 14:12)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와드 및 지부가 있고, 90여 개 언어로 연차 대회가 전해지며, 418개 선교부의 75,000명에 달하는 전임 선교사들이 복음을 나누고 있다. 복음은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 Mormon.org와 LDS.org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하지만, 조용히 진행될 때가 많다. “이 주님의 사업은 참으로 위대하고 기이하지만, 필연적으로 수많은 정치, 문화, 학문적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전진[한]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한 번에 한 개인, 한 가족의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며, 그 성스러운 가르침은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sup>2</sup>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그 돌은 진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복음은 계속해 퍼져 나가 온 지상을 채울 것이다.(다니엘 2:31~45 참조) ■

교회의 미래에 대해 더 공부하려면 다음 자료를 읽어 본다. 교리와 성약 65편; 고든 비 힝클리, “산에서 뜨인 돌”(2007년 10월 연차 대회); 엘

휘트니 클레이튼, “때가 이르리라”(2011년 10월 연차 대회)

### 주

1. 러셀 엠 넬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50쪽.
2. 엘 휘트니 클레이튼, “때가 이르리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3쪽.



### 교회의 미래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신권 형제는 고작 몇 명뿐이지만,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 1834년 신권 모임,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37쪽.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고 간증을 굳건히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기 위한 토대가 된다.



우리가 부름을 완수할 때 우리가 소속된 지역의 교회가 강화된다.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그들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세상이 가족을 가르칠 것이다.



사람들과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는 것이다.



성전에서는 이생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베풀 수 있다.

# 엄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레온지나 아다메스 데 우브리

여섯 살 난 딸의 신앙 덕에 나는 신앙을 되찾았다.

**스**물두 살 때, 내 삶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신앙이 매우 두터웠던 어머니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나를 기르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셨다. 형제가 없던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몹시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셨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계셨다. 그나마 아버지를 보는 건 일 년 중 삼 주 정도뿐이었다.

그런 외로운 마음에, 나는 점점 대학과 직장 친구들에게서 도피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서히 현세적인 것에서 헛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어느덧 완전히 교회에 발길을 끊게 되었다. 나중에 나는 아주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남편은 훌륭한 원칙을 지켰지만 복음은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레아, 이삭, 이스마엘이라는 세 자녀가 있었다.

어느 10월, 아버지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오셨다. 아버지가 와 계신 동안 여섯 살 레아는 왜 할머니랑은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으시는지를

할아버지께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할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아주 특별한 곳에 계신다고 설명해 주셨다. 아버지가 가시기 무섭게 레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늘에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거기 다 같이 있게 되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아빠,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엄마랑 지랑 말이예요. 엄마랑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기서처럼 저기

하늘에서도 우리 가족이 그대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놀 수 있게요!”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레아의 예쁘고 순수한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침실로 간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이 다 마르도록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길을 내가 버린 것이다. 나는 그 옳은 길을 따라가며 자녀들을 이끌어 줄 책임을 다하지



## 하늘에 매임

“지상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구주께서는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가족을 인봉하는 권능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우리가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해의 왕국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면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가족은 영원해”, *리아호나*, 2015년 6월호, 4쪽.



못했고, 남편에게 복음을 알려 주지도 못했다.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나는 교회 지도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우리 워드의 장로들에게 내 연락처를 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밤에 장로들이 찾아와 남편을 가르쳤다.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참석한다. 나는 저활동 회원인 자매들을 돕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성전에 갈 준비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일이 이번에는 내 여섯 살짜리 딸을 통해 일어난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성전에서 인봉됨으로써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 ■

글쓴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산다.

## 토론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테드 반스  
교회 신권 및 가족부

**친**구들과 점심을 들면서 같이 보았던 영화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줄 사람 있을까?”

여러분은 질문에 조금 어리둥절해 하며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친구가 말한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누가 또 말해 볼 사람 없을까? 아직 이야기 안한 사람 말을 좀 들어 보자.”

아마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대화가 흔히 오가는 듯하다. 복음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토론하는 대신, 교사인 우리는 때때로 다른 곳에서라면 이상하고 불편하게

들렸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우리는 반원들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느끼면서 그들이 배우는 원리에 대한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기 바란다.

그런 토론은 영을 불러오며, 그럴 때 모든 이의 경험이 풍성해진다.

어떻게 하면 질문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여기 많은 교사에게 도움이 되었던, 해야 할 질문과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의 예가 있다. 뻔한 답변이 나오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답이 하나 이상인 질문을 한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삼간다.

공과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전에 교사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애초에 나는 왜 질문을 하려고 하는가?

### 왜 질문을 하는가?

질문의 동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해야





교사가 수업 전에 스스로 던져 보는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할 말이 있는데 반원들이 그 말을 해 주기를 원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는가? 당연히 교사가 혼자서 모든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요지는 도출되어야 하므로 의도한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런 태도는 사실은 질문을 가장한 설명으로 이어지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외설물을 피하면 순수한 생각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매일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지극히 적절한 상황도 있다. 이런 질문은 교사가 요점을 강조하거나 공과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으로는 의미 있는 토론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반면, 반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것들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한다면, 그 마음이 질문에 드러날 것이다.

영적인 배움으로 이끄는 진심 어린 대화에 반원들을 참여시키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와 닿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셨습니까?”, 혹은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형태를 띤 대부분의 질문이 여기 해당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영이 니파이에게 질문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니파이전서 11:10)
-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태복음 16:15)
- 구주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 26)

이 각각의 질문은 사람들이 마음속 생각을 나누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 있는 영적 경험이 뒤따랐다.

### 질문, 사랑의 표현

사실, 토론으로 이끄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다. 스스로 좋은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말이다. 이는 우리가 친구나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또는 단순히 점심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반원들 앞에 서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잊고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토론 질문을 위한 비결 중 하나는 아마도 교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일일 것이다. “만약 교실에서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 앉아 복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질문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방법으로 친구들이 깨닫고 느낀 점을 나누게 할 수 있을까?” 분명 가르치는 것은 친구들과 나누는 가벼운 수다와는 다르다. 하지만 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진심 어린 관심과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유려한 질문을 만드는 일이 아직 서툴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르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도,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점차 더 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은(고린도전서 13:8) 반에서 교사가 질문을 하는 간단한 일에도 해당하는 진리이다. ■

**질문**의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6년) 31~32쪽을 참조한다. 같은 내용이 Teaching.Ids.org에도 게재되어 있다.



#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교리와 성약에서 얻는 통찰

이 계시의 책은 신화에 관해 잃어버린 진리를 밝혀 주며,  
우리가 다시 구주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노먼 더블유 가드너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복** 음의 회복은 신화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세상에 선사했다.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그분들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그분들의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은 커진다.

특히, 교리와 성약에는 “그의 신성, 그의 위엄, 그의 완전성,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구속의 권능”에 관한 굳건한 진리가 있으므로(교리와  
성약 소개), 우리는 이를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가 담긴 이 책에서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권유하셨다.(교리와 성약 19:23) 우리는 교리와 성약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교리와 성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담겨 있다

교리와 성약은 고대의 경전이 아니다. 이 책에는 조셉 스미스를 비롯해 그의 뒤를 이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가 수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전하신다.<sup>1</sup>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록은 신약전서와 물몬경, 값진 진주를 통튼 것보다 교리와 성약에 더 많이 나온다.<sup>2</sup>

**교리와 성약 18:33~35**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말하였노라. 이 말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음성[이니라.]”



조셉은 구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는 조셉 스미스 이세, 대니얼 에이 루이스



케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주님, 멜 패슨

케틀랜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 교리와 성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1820년에 첫번째 시현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 계심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 기사 외에도 교리와 성약에는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시현 혹은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기사가 더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는 그분들이 살아 계시고, 복음의 회복을 이끄셨다는 점을 현대의 우리에게 증거한다.

**교리와 성약 76:19~23** 1832년 2월, 아버지와 아들이 시현으로 나타나셨다.

**교리와 성약 137:1~3** 1836년 1월, 아버지와 아들이 시현으로 나타나셨다.

**교리와 성약 110:2~4** 1836년 4월, 위대하신 여호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교리와 성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또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sup>3</sup>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성품, 목적을 배움으로써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0:12, 17~18**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불변하시다.

**교리와 성약 76:20, 23**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다.

**교리와 성약 93:3~5**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교리와 성약 130:22**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로 되어 만질 수 있는 육신이 있으시다.

**교리와 성약 138:3~4**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



순교의 순간 아버지와 아들을 본 스테반



여호와를 본 모세 그림의 일부, 조셉 브리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예수 그리스도)

**교리와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가운데 장자이셨다. 그분은 전세에서 모든 지식과 권능을 얻으셨고, 세상의 창조자로서 아버지를 대표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써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교리와 성약에는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맡으신 여러 역할이 잘 드러나 있다.

**교리와 성약 93:2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가운데 장자이셨다.

**교리와 성약 38:1~3**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모든 지식과 권능을 얻으셨다.

**교리와 성약 76:24**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자로서 아버지를 대표하셨다.

**교리와 성약 88:6~13**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교리와 성약 45:11; 136:21, 22**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이시다.

**교리와 성약 43:34**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다.

**교리와 성약 18:11~13; 20:21~25**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교리와 성약 29:10~12**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더 닮아 갈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리와 성약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가르쳐 준다**

교리와 성약에서는 영생이 무엇인지가 다른 경전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교리와 성약에 따르면,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가서 아버지가 소유하신 모든 것을 물려받고 그분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리와 성약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정하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드러나 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교리와 성약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로 은혜를 받으시어 모든 권능과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1:32; 19:16~19; 58:42~43; 95:1~2**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신다.

**교리와 성약 20:37, 41, 72~74; 또한 33:11** 참조. 신회는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도록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84:19~21**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교리와 성약 93:12~14, 16~17**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은혜를 받으시어 충만함을 받으셨다.

**교리와 성약 20:30~31** 구주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봉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리와 성약 35:2; 50:40~43**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93:19~20**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은 영적인 지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준다**

교리와 성약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신의 도움으로 신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준다. 즉,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를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진리가 약속된다. 신회의 본질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영적인 이해를 구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축복하고자 소망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교리와 성약 6:5; 76:5~10, 114~118**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식과 약속을 나누고자 그것들을 구하기를 바라신다.

**교리와 성약 84:43~48** 우리가 부지런히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교리와 성약 88:118** 연구와 신앙으로 배우고자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기도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열쇠가 된다.



복음을 가르치는 조셉 스미스 그림의 일부. 쉐 로울러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과 목적을 밝힌 조셉 스미스

**결론**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 드러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과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이유를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하나님의 목적은 위대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분의 권능은 광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시편 48:14)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sup>4</sup> ■

**주**

1. 조셉 윌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타락 이후의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경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언급되고 그가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 아버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과 직접, 친히 관계하신 적이 없으며, 아들을 소개하고 증거한 때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신 적도 없었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1권 26쪽)
2. See Gordon B. Holbrook, “The Voice of Jesus Christ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Ensign*, Sept. 2013, 40, 45(note 2).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0~41쪽.
4. *가르침: 조셉 스미스*, 39쪽.

고든 비 힝클리:

# 낙관과 비전의 선지자

올해 여러분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를  
공부하면서 무한한 낙관주의와  
사랑과 선견지명을 지녔던 한  
선지자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1910년 6월 23일 브라이언트 스트링엄 힝클리와 에이다 비트너 힝클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7년 4월 29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조리 페이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그는 1995년 3월 12일부터 2008년 1월 27일까지 교회의 제15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앤드루 디 올슨**

교회 출판서비스부

**“매**년 봄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82세에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가 최소한 50년은 된 것 같다. ... 나무는 정말 경이롭다. 아주 작은 묘목으로 시작하여 계절을 거치며 성장한다. 여름에는 그늘을 내어 주고 맛난 열매도 맺는다. 광합성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계속 이어 나간다. ... 나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중의 하나이다.”<sup>1</sup>

힝클리 회장은 90세가 넘어서까지 계속 나무를 심었다. 나무 심기에 대한 그의 애정은 사도로서 또한 교회 회장으로 그의 봉사와 성역에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 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낙관주의의 표현이었는데, 이런 특징은 그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도 또한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살폈다.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살폈듯이 말이다. 또한 그는 그 나무들이 장차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가 각 개인의 영원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하나님 사업의 장엄한 미래를 바라보았듯이 말이다.

**“우리에게는 낙관적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자주 말했다. “우리가 폭풍우를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햇빛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sup>2</sup> 힝클리 회장은 긍정적인 관점을 길렀지만, 그의 낙관주의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었다. 그 낙관주의를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그분의 계획에 대한 깊은 간증이였다.

힝클리 회장의

낙관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은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라는 굳은 믿음이었다.<sup>3</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그 문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힝클리 회장님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사가 잘될 것입니다.’”<sup>4</sup>

그러나 이 메시지가 단지 타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힝클리 회장은 회중에 이렇게

*Gordon B. Hinckley*

말씀했다. “저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sup>5</sup>

시련 중에 있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중압감에 짓눌릴 때, 힝클리 회장에게 버텨 낼 힘을 준 것은 이러한 낙관주의였다. 또한 그는 방해에 부딪히거나, 실망하거나, 심적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만사가 잘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

힝클리 회장은 낙관주의를 고수하면서도 문제를 축소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세상 이곳저곳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 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의 마음에 중오가 얼룩진 지역도 가 보았습니다. 많은 지역이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 우리 사회의 도덕이 백없이 무너지는 것을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 세계는 의가 승리할 것이며 진리가 널리 퍼질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엄숙한 신앙이 있습니다.”<sup>6</sup>

힝클리 회장은 미국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뉴욕타임스 기자와 나는 인터뷰에서, 비극과 문제가 도처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낙관주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교회 역사에 대한 그의 애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에게는 낙관적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 나부를 보십시오. 7년 만에 이런 도시를 세웠지만 성도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이 대륙의 절반을 횡단하였고 사막의 모래를 바꾸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이 교회는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비판주의나 냉소주의로는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됩니다. 낙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일한다면, 일은 이루어집니다.”<sup>7</sup>

힝클리 회장의 낙관주의는 그의 유머 감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기분 좋고 유쾌한 재치가 있었다. 한번은 한 스테이크 회장 집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은 오래된 학교를 개조하여 만든 집이었다. 그날, 힝클리 회장은 한때는 교실이었던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스테이크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도 교실에서 잔 적은 많지만, 침대까지 놓고 잔 적은 처음입니다.”<sup>8</sup>

### “우리의 염려는 항상 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회장으로 성임되고 난 뒤 첫 연차 대회 말씀에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씀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원리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의 관심과 염려는 항상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 달성한 것을 숫자로 표현하지만 모든 노력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sup>9</sup>

십이사도로 봉사할 때, 힝클리 회장은 전시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외진 지역들을 방문하여 개개인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아무리 멀리 있든, 아무리 소규모이든, 힝클리 회장의 관심을 벗어난 단체는 없었다. 그는 교회의 회장이 되고 난 후에도 이런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 갔다. 그는 때로는 대규모의 인원을, 때로는 소수의 인원을 만났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을 방문했고, 160만km 이상을 여행했다.

1996년에 힝클리 회장 부부는 18일에 걸쳐 아태지역 8개국을 방문했다. 일본을 시작으로 강행군을 이어 가며 가는 곳마다 운집한 수천 명의 성도를 만났다. 힝클리 회장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기록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이다. 내가 1960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다.”<sup>10</sup> 힝클리 회장은 이 여행 기간에 중국 홍콩 성전도



헌납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필리핀이었다. 마닐라에 모인 35,00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나서 핑클리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마음속에 벅찬 감정을 안고 일어나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났다.” 그날 오전, 핑클리 회장은 1961년에 그가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헌납 기도를 드렸던 곳을 다시 찾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당시 우리는 단 한 명의 필리핀 회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그 한 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삼십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sup>11</sup>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핑클리 회장 부부는 그 비행기가 재급유를 위해 사이판 섬에 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핑클리 회장은 사이판에 선교사가 있는지 물었고 그곳에 소수의 선교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고된 여정의 막바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핑클리 회장은 그 소수의 선교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 “나는 우리가 사이판에 오후 일곱 시쯤 착륙할 텐데 그때 잠시 공항으로 나와 주면 좋겠다는 말을 선교사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수 시간이 지나 사이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열 명의 선교사와 약 6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핑클리 회장 부부를 맞으러 나와 있었다. 핑클리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우리를 안아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서 기뻐고 우리도 그들을 만나서 기뻐다. 비행기에 재급유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주 잠시 동안만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우리는 다시 비행기로 돌아왔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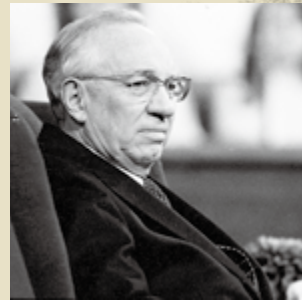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2002년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핑클리 회장이 개개인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던 일화가 있다. 핑클리 회장은 거의 매일 각국의 대통령, 대사,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 하루는 독일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일정 직전에 열세 살 난 청녀 한 명을 만났다. 그날은 그 청녀의 생일이었다. 핑클리 회장은 기록했다. “[그 청녀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증병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참으로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 나는 그 청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sup>13</sup>

핑클리 회장은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고, 그들도 핑클리 회장을 사랑했다. 브라질에서 핑클리 회장의 말씀을 듣고 난 뒤 한 청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느꼈어요. 핑클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 집으로 갔을 때 제가 오늘 한 말은 모두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sup>14</sup>

핑클리 회장의 부인인 마조리는 개개인에 대한 핑클리 회장의 관심과 염려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였고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핑클리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아내를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원들과 만나고 있는  
핑클리 회장. 중국 홍콩에서  
그의 아내 마조리와 함께.  
연차 대회에서 생각에 잠긴  
핑클리 회장

아는 모든 사람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것은 아내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들의 문제와 필요 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 그런 동반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sup>15</sup>

다섯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난 뒤 핑클리 부부는 늘 함께 다녔고, 핑클리 자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핑클리 자매는 선교사를 만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 선교사의 부모에게 깜짝 전화를 주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의 청중과도 금방 친해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핑클리 회장은 한 지역 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기록했다. “[아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하는 반면, 아내는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sup>16</sup>

핑클리 회장의 장례식에서 그의 보좌였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핑클리 회장이 이룬 업적 일부를 요약했다. 그런 후 이

업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분이 이룬 업적들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회가 가장 적은 사람들, 일상의 삶이 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사람들에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스턴 매사추세츠 성전에서의  
힝클리 회장. 뉴스 매체와의  
교류. 가나에서 회원들과 함께.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헝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 기억하고 있나요?’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sup>17</sup>

### 미래를 위한 비전

힝클리 회장의 낙관주의와 개개인에게 집중하는 태도는 미래에 대한 그의 선지자적 비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비전은 어느 무엇보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힝클리 회장은 성전의 의식이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강조했다.<sup>18</sup>

그가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은 1995년에는 전 세계에 47곳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성전의 수는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전에 관한 그의 비전은 대담하고 확장적이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교회 소유 학교의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 콜로니아 후아레스를 찾았을 때인 1997년, 힝클리 회장은 성전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감을 받게 된다. 자동차로 한참을 먼지투성이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의 비서 돈 에이치 스타헬리는 그때를 회상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 회장님께서 계시를 받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회장님이 소규모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습니다.”<sup>19</sup>

힝클리 회장은 훗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생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문해 보기 시작했다. …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 필수적인 요소는 모두 갖춘 비교적 작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 나는 계획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것이 영감이자 주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 집으로 돌아와 보좌들에게 이것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찬성했다. 곧이어 십이사도 정원회에 이야기했고 그들도 찬성했다.”<sup>20</sup>

그로부터 4개월 후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교회가 이제부터 대규모 성전을 지을 만큼 회원 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성전을 짓기 시작하겠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우리는 성도들 가까이에 성전을 많이 지어서 그분들께 성전 예배에서 오는 값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sup>21</sup>

그다음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역사적인 발표를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은 2000년 말까지 전 세계에 100개의 성전을 운영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씀했다.<sup>22</sup> 1999년 4월에 성전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엄청난 사업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일은 잘 진행될 것이며, 저는 우리가 틀림없이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sup>23</sup>

힝클리 회장은 2000년 10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교회의 100번째 성전을 헌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해에 네 개의 대륙에서 헌납한 총 21개의 성전 중 하나였다. 그가 생을 마칠 즈음에는 모두 124개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13개

성전의 건축이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이었다.

힝클리 회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영감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가난을 목격하며 비통해했으며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빈곤 국가의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기금으로 회원들은 학자금을 대출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 기금을 통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도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나 컨퍼런스 센터의 건립과 같이 힝클리 회장의 선지자로서의 비전을 보여 주는 많은 사례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에 나와 있다.



것이다. 그것이 나의 천성이다.”<sup>24</sup> 젊은 선교사였을 때나 97세의 선지자일 때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과 묘목을 심는 것은 그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14년 동안 제일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했다. 그리고 84세에 교회의 회장이 된 이후로, 그는 거의 13년 동안 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힝클리 회장의 평생에 걸친 봉사의 삶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 “나의 간증”이란 제목의 연차 대회 말씀에서 힝클리 회장은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오늘 아침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입니다. ...

그분은 저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죽음에 따르는 영원한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저와, 우리 각자,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끌어 올리기 위해 손을 뻗치셨습니다. ...

그분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왕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 이 말씀을 드립니다.”<sup>25</sup> ■

### “나의 간증”

91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제 더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심을

주  
1. Gordon B. Hinckley journal, Mar. 22, 1993.  
2. Gordon B. Hinckley, *Standing for Something: Ten Neglected Virtues That Will Heal Our Hearts and Homes* (2000), 101.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2016) 65쪽.  
4. Jeffrey R. Holland, “President Gordon B. Hinckley: Stalwart and Brave He Stands,” *Ensign*, June 1995, 4.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327쪽.  
6. Conference Report, Oct. 1969, 113.  
7.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412.  
8. *Journal*, Nov. 4, 1973.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287쪽.  
10. *Journal*, May 22, 1996.  
11. *Journal*, May 30, 1996.  
12. *Journal*, June 1, 1996.  
13. *Journal*, Feb. 22, 2002.  
14. In “The Prophet Spoke to Youth,” *In Memoriam: President Gordon B. Hinckley, 1910–2008* (supplement to the *Ensign*, Mar. 2008), 15.  
15. *Journal*, Nov. 23, 1974.  
16. *Journal*, May 14, 1995.  
17. 헨리 비 아이어링,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193쪽.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301쪽.  
19. Don H. Staheli oral history transcript (2012), 85, Church History Library.  
20. *Journal*, Mar. 6, 1999. 멕시코 콜로니아 후야레스 성전의 첫 번째 헌납식에서 한 말씀의 요약. 힝클리 회장은 20년 이상 소규모 성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30, 297~299쪽 참조)  
21. 고든 비 힝클리,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9쪽.  
2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299쪽.  
23. 고든 비 힝클리,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쪽.  
24. *Journal*, June 18, 2001.  
2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 309~311쪽.





크리스토펬 골든  
장로  
칠십인 정원희

# 구주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여

우리는 누구나 행동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며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에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었습니다. 저는 한 육군 분대로 배치되었는데 그곳에는 사람은 좋지만, 말과 행동이 거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중에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복음 표준대로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 시작부터 제 신앙을 담대히 옹호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행동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제 분대에 있던 병사들은, 비록 몇몇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그랬지만, 나중엔 제 표준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야외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아름답고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가득한 캄캄한 밤에, 우리 분대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탄산음료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대화가 오갔고 부적절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부대원 몇 명이 우리 무리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제가 손에 탄산음료를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왜 맥주를 함께 마시지 않고 분위기를 깨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놀랍게도 저의 한 동료가 그 대원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 주시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크리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크리스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대원은 슬며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칭찬에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그 순간에 “믿는 자에게 본이 [돼]”라는 바울의 권고를 따르는 선택을 했던 것이 속으로 기뻐했습니다.(디모데전서 4:12)

여러분도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생에서 특히 지금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기회에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 또는 생애를 마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 관해 뭐라고 기록하고 싶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용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경전에 기록된 가장 경이로운 시현들 중 하나에서, 조셉 스미스는 부활하고 심판받은 후에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자들의 조건에 관해 기술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같은 편(76편)에서는 또한 해의 왕국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달의 왕국과 별의 왕국에 들어갈 후보자들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달의 왕국을 받을 자들에 관한 계시는 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이며] ...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나,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6:75~76) 그다음에 우리는 놀라운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76:79; 강조체 추가)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필멸의 시험 단계인 지상 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심오하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해의 왕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주님의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용감하고 담대하게,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력과 능력을 다하여 신앙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 의의 대업에서 용기의 초석이 되는 것은 모든

복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며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2.)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것이며, 지상에서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의 참됨과 신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1:20) 그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에 옮기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정결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야고보서 1:27)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욕정과 욕구를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육욕적이고 악한 것들에 굴하지 않고 초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셨던 그분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요청받을 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매사에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바를 생각하고, 그분이 믿는 바를 믿으며, 그분이 하셨을 말을 하고 하셨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가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sup>1</sup>

저는 여기에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성역 동안 주신 가르침을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짐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4~39)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로서 다시 한 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  
 또는 남편, 자녀, 친지와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거할 수 있는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필멸의

휘장 너머에서 경험하게 될 이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자 구주에 대한 간증과 봉사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남아야 합니다.

#### 행하기 위한 준비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은 셀 수 없는 기회와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중에는 작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결정도 있고, 또 심오하고 그  
 결과가 오래 지속되는 결정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행동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며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종종 의롭고 용감하게 행동하기가 곤란하고



사람들의 눈에 대중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다면,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무언가에 홀로 맞설 때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반대 중에 홀로 맞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38년 11월경,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팔리 피 프랫(1807~1857)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족쇄에 묶인 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프랫 장로는 감금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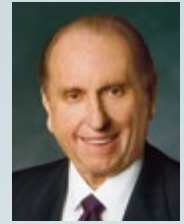
“감옥에서의 지루했던 어느날 밤, 우리는 자정이 지날 때까지 자는 듯 누워 있었다. 보초들이 프라이스 대령을 둘러싸고 [미주리 주] 파웨스트와 인접 지역에서 ‘몰몬들에게 자행한 약탈, 살인, 강탈에 대해 떠들어대며 내뿜는 외설적인 농담, 진저리나는 욕설, 끔찍한 신성모독과 추잡한 언어를 몇 시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은 고통으로 얼룩졌다.

심지어 그들은 강제로 부인과 딸, 처녀를 강제로 겁탈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쏘거나 머리를 때려 부순 것에 대해 자랑하기도 했다.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놀랍고 소름 끼치고 분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간수들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셉 옆에 누워 있었고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외쳤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의 말은 이러했다.

‘조용히 하라! 어둠의 자식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 나는 단 한 순간도 그런 말을 더 듣지 않겠노라. 그러한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든 나든 즉시 죽으리라!’

그러고는 그는 말을 멈추고 매우 위엄 있는 태도로 똑바로 서 있었다. 족쇄에 묶이고 무기조차 없었지만 그는 조용하고



### 여러분의 믿음을 수호하십시오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고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곁에 설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아는 지식으로 힘을 얻어 용감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7쪽.

냉정하며 천사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기죽은 간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는 들고 있던 무기를 내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무릎은 후들거렸으며, 구석에 웅크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용서를 빌며 교대 시간까지 조용히 있었다.”<sup>2</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인 용기는 선지자나 교회의 오래된 회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의 삶에서 이를 입증해 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857년 가을, 열아홉 살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가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마차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도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존스톤 대령의 부대는 유타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증오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마차 행렬 진영으로 다가와 욕을 퍼붓고, 발견되는 모든 물문들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마차 행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덤불로 숨었지만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달아나야 하나? 내가 왜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지?”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그는 불량객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던 그 사내는 조셉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물문인가?”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뺏속까지 충실한 골수 물문이지요.”

그 말에 그 불량배는 조셉의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유쾌한 사람이오! 악수합시다, 젊은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을 만나 기쁩니다.”<sup>3</sup>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 매일, 개인 역사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잠자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넘칠 것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도전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지상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고 필멸의 장막 너머의 더 많은 이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사정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음으로써 위대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구주이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동안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 동안 감명 깊은 가르침과 함께 모든 살아 있는 영혼에게,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분명 주님의 회복된 교회이며,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나누는 모든 사람과 제가 이 위대한 대의 앞에 용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4년 6월 17일, LDS 비즈니스 칼리지에서 한 연설, “Being Valiant(용감하다는 것)”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ldsbc.edu](http://ldsbc.edu)에서 볼 수 있다.

#### 주

1. 브루스 알 맥쿱키,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38쪽.
2. *Autobiography of Parley Parker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210-11.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132쪽 참조. [번역 일부 수정]



게리 이 스티븐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이 연구와 기도의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깨달을 때, 배우고 일하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지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 학생 시절 저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서 반겨 주는 경전 구절이 있었는데 ...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잠언 4:7)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 머리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4년의 대학 시절 동안 도서관에 들어올 때마다 읽다 보니 이 잠언 구절은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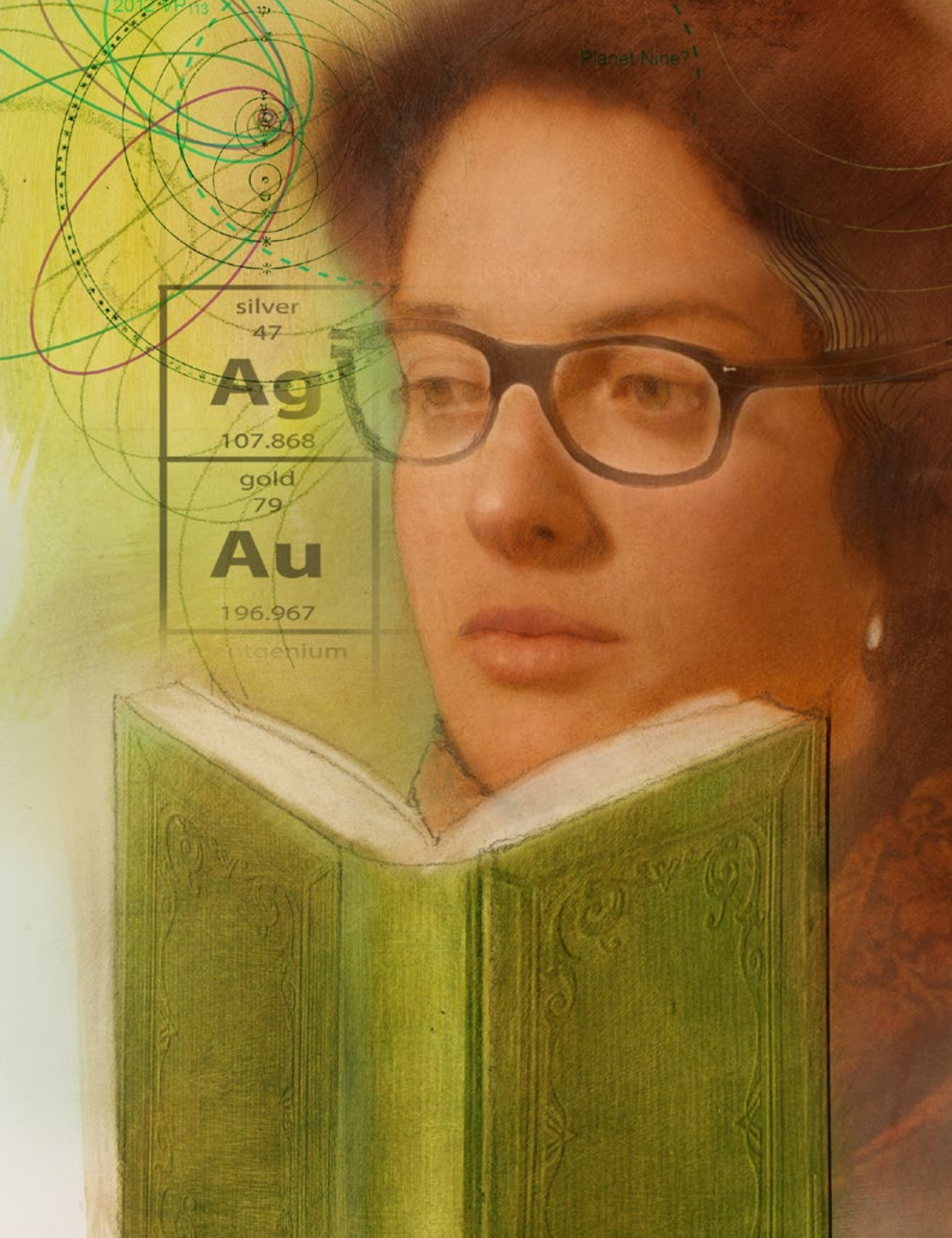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십시오.]” 또한 이 성구의 의미와 여러분에게 이 성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성구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해 보았으며 그러면서 이 성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듣는 마음

젊은 선교사로 일본에서 봉사하며 어려운 일본어를 배우느라 고군분투하던 시절, 일찍부터 자주 들던 말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좋은 아침입니다)나 곤니치와(낮에 하느님안녕하십니까)와 같은 인사말 두 마디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의 와카리마셈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젊은 선교사가 일본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일본 사람이 손을 내저으며 제일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명철이라는 말이 ‘내 귀로 듣고 내 머리로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와카리마셈이라고 말하듯이, 명철이란 제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이라는 말의 용례를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에서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Planet Nine?

silver 47 <b>Ag</b> 107.868
gold 79 <b>Au</b> 196.967 mercury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에서 본이 된다는 말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는 믿음이 있으며, 또 그 믿음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 양심의 갈등 및 일상의 소란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닻이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7쪽

우리는 또한 경전의 가르침대로 “명철”도 얻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명철은 연구와 기도가 합쳐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이 교회의 감리 감독이셨을 때 하신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타고난 예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구하고, 연구하고, 깨우쳐 나감으로써, 우리의 예지에 지식을 더해 갑니다. 그런 후 우리의 지식에 경험을 더하여,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그 지혜에, 우리는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인도하심과 힘이 더해지도록 성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명철을 얻게 되고 ‘의의 일’을 하여 보람을 찾게 됩니다.(찬송가 1985, 177장) 명철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의로운 일을 분별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온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명철은 연구와 기도의 밀접한 상호 의존성에서 나옵니다.”<sup>1</sup>

이제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맥락에서의 명철은 예지, 지식, 경험, 지혜, 그리고 성신의 속삭임이 있고 난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인생의 중대한 교차로에 다가가고 있거나 이미 진입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러분은 점점 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시기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이나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지에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성신에게서 오는 인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엘마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며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해력(명철)을 밝혀 주기 시작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엘마서 32:28, 강조체 추가)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서는 명철에 대한 다른 시각을 더해 주는 잠언의 한 구절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sup>2</sup>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더 많은

명철이 그분에게서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

회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던 한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조직된 지 얼마 후,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이세를 포함한 그의 몇몇 아들과 남편인 조셉 스미스 일세를 커틀랜드로 떠나 보내고 큰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 뉴욕 주 워털루에 남았습니다. 루시는 선지자인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으면 이 성도들을 이끌고 오하이오로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1831년 이른 봄 연락이 왔습니다. 루시는 일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을 뉴욕 주 버펄로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호에서 배를 타고 오하이오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얼음이 녹아 수로가 항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모두 커틀랜드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배를 구했고 우리의 수는 모두 80명이었다.”

그들이 이리 운하에 진입하여 버펄로를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형제 자매를 모두 불러 리하이가 주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났듯이 우리도 주님의 명으로 이 여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충실하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숙하기를,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우리가 변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청했다.”

워털루를 떠나 버펄로로 절반쯤 갔을 때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80명 성도의 상황은 열악했고 즉시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그들의 신앙을 단합시켜야 했습니다. 루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 여러분들은 굶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인내하고 불평을 거두십시오. 저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워털루를 떠난 지 5일이 지나 버펄로에 도착했을 때 이리 호로 이어지는 항구는 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루시 스미스 가족과 친분이 있던 블레이크 선장을 고용했습니다.

출발할 수 있다는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배의 상황이 모든 성도가 머무르기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이크 선장님은 지금부터 언제든 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승객이 배에 탑승한 채 대기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내 얼음의 두께를 재 봤는데 그 두께가 6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은 항구에서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물자도 떨어져 가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찌 지금처럼 불평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녀들보다 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안락한 흔들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단호함과 열정을 기대했던 형제님들은 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왜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정말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물길이 열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린다면 얼음을 깨뜨리는 일은 주님께는 쉬운 일이며 우리는 당장이라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루시 스미스의 위대한 신앙에 주목하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어떻게 간청하는지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얼음이 깨지도록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로 올려 보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주님이 살아 계시듯 틀림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즉시 천둥과도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선장이 소리쳤다. ‘모두 각자 위치로!’ 얼음이 깨지면서 배가 겨우 지나갈 만큼 벌어졌고, 그 좁은 틈을 지나가자 배 양 옆의 외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부서졌다. 선장의 명령소리,



오도 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불평을 멈추고 그들의 소망을  
하늘로 올려 보내라고 격려한 후,  
루시 맥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얼음이 깨지면서 배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벌어졌다.” 우리가  
탄 배가 가까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자 얼음이 다시 합쳐졌다.



선원들의 목 선 대답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구경꾼들의 비명과 혼돈이 어우러져 실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우리가 가까스로 그사이를 지나가자 얼음이 다시 합쳐졌고, 콜스빌의 형제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버펄로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우리가 항구를 떠나자 구경꾼 중 한 사람이 외쳤다. ‘저기 물몬 무리가 간다! 배가 보통 때보다 20cm가 넘게 더 깊이 잠겨 있으니 내가 장담하는데 저 배는 분명히 가라앉을 거야.’ 사실, 그들은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곧장 신문사로 직행하여 우리 배가 침몰했다고 기사를 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페어포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신문에서 우리의 사망 소식을 읽었다.”<sup>3</sup>

####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또는 바꿔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저는 주님의 “명철”을 얻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초래되는 슬픔과 참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거나 육신의 팔에 자신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 명성, 권력, 지위에 훨씬 더 초점을 두거나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철”의 영적인 인도에 따라 “얻는” 자들은 육신의 욕망을 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주님의 왕국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활동의 적절한 맥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열망에 가득 찬 젊은 학생 시절, 한 성공한 멘토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우리가 “배우고, 벌고, 봉사하는” 순서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야망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께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방식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책임, 둘째, 고용주에 대한 책임, 셋째, 주님의 사업에 대한 책임, 넷째,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가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 가족 경전 공부, 고용주에 대한

정직과 충실, 교회 책임 완수, 개인 경전 공부, 휴식, 여가생활, 그리고 운동으로써 이 네 가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4</sup>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언제나 그렇듯, 아주 훌륭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sup>5</sup>

다행히도, 후기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은 확실한 인생의 방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를 물속에 깊이 넣어서 똑바로 힘차게 저으십시오.

연차 대회 말씀에서 몬슨 회장님은 잠언의 다음 구절을 다시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이 진리는 참됩니다.”<sup>6</sup> 참으로 본받고 싶은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 저도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시작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 끝을 맺고 싶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진정한 명철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연구와 기도와의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깨달을 때, 배우고 일하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지킬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

2015년 1월 1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의로운 선택을 함”,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11쪽, 강조체 추가.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폐회 말씀”,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112쪽.
3. 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by His Mother*, Lucy Mack Smith (1979), 195-99 참조, 202-205; emphasis added.
4. Gordon B. Hinckley, “Rejoicing in the Privilege to Serve,”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une 21, 2003, 22, 23 참조.
5. Ralph Waldo Emerson, in “The American Scholar,” an address delivered on Aug. 31, 1837,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6. 토마스 에스 몬슨, “폐회 말씀”, 112쪽, 잠언 3:5~6 인용.

##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을 존중한다는 것

**지**부에서 아론 신권 청남들을 가르치는 나는 어느 일요일, '여성 존중'을 주제로 공과를 가르치게 되었다. 우리는 아론 신권 교재에 언급된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반에서 청남들 중 하나인 게이브리얼(가명)은 자신에게 여성이란 자기 어머니 연배는 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보다 어린 여성은 남성인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도 게이브리얼의 말에 동조하지 않자 게이브리얼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하는 눈치였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여성이 차에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에게 존중을 표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내릴 때까지 30~40분을 서서 가야 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남성은 서서 가야

하고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게이브리얼은 여전히 공과를 못마땅해하는 모습이였다.

이틀 뒤, 대중 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였다. 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한 남성이 어린 딸을 데리고 차에 올라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어서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타시자 나는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남자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뒤쪽을 가리키더니, 소년 하나가 나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누군지 보려고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 소년은 조금 전에 딸을 데리고 탄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터였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게이브리얼이었다. 내가 여성 존중을 주제로 아론 신권 반을 가르치는 동안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아이 말이다.

게이브리얼은 말했다. "형제님이

정말로 차에 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시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일요일에 배운 공과가 생각나서 저도 저 어린 여자아이를 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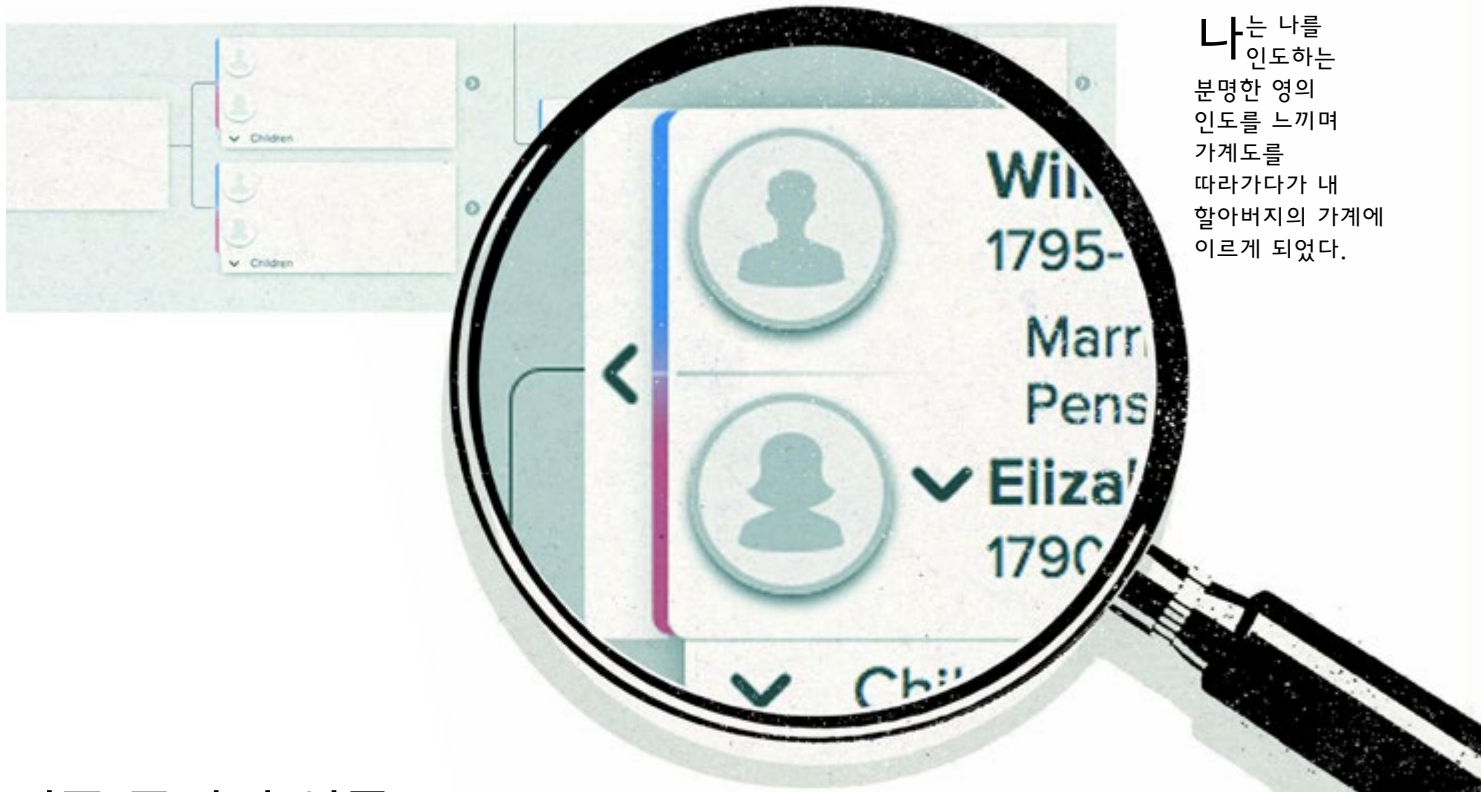
우리 청남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존중은 연장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던 게이브리얼이 일요일 공과 이후 네 살 난 어린 소녀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나 또한 내가 가르친 대로 생활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게이브리얼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 행복하다. 만일 내가 차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게이브리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 성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17) ■

오위 오사레틴 프라이데이,  
나이저리아 에도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타시자 나는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명한 영의  
인도를 느끼며  
가계도를  
따라가다가 내  
할아버지의 가계에  
이르게 되었다.

## 지금 준비된 이름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이 끝난 어느 일요일, FamilySearch 계정에 로그인해서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겠다는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까지 시도해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터라 가족 역사 사업에 시들해진 상태였다. 게다가 우리 가족은 워낙 가족 역사를 잘 해 왔으니 내심 내가 더 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기대앉아서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진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부디 이번에는 뭔가 알아내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인구 조사 기록과 결혼 및 출생 기록 검색을 시작으로 몇 시간을 보냈지만 역시 아무 결실이 없었다.

그런데 연차 대회가 진행되던 주말 내내 나에게 속삭이던 영이 느껴지면서, 현재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이름에 대해 기도해 보고 그 이름들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도를 마치고 내 이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명한 영의 인도를 느끼며 가계도를 따라가다가 내 할아버지의 가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한 시간가량 영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성전에 가져갈 수 있는 이름을 여섯 개나 찾게 되었다. 그런 뒤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요청해 놓고 정보를 찾았던 몇몇 기록을 살펴보던 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을 내고 자원하여 내 조상들을 위해 기록을 입력해 준 색인 작성자들 덕분이었던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을 더 들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름 색인 작업을 했다.

그날 나는 두 가지 이유로 감사하며 간증이 커졌다. 먼저, 그 연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이 이끌어 준 덕분에 내가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과 어떤 이름을 찾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상을 찾고 성전 사업을 서두를 수 있도록 이름 색인 작업을 하는 교회 회원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분명하고 강한 간증이 생겼다. ■ 리사 윌피, 미국 네바다 주

## 어느 스카우트 지도자의 기도

**스**카우트 지도자인 나는 스무 명의 청남과 두 명의 지도자를 이끌고 활동 차 미국 유타 남부로 향하는 길이었다.

야영 장소로 이어지는 분기점에 이르자, 나는 차를 멈추고 이제 곧 들어설 사막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와 본 길이었는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눈앞이 온통 낮설기만 했다. 나는 좌우를 살펴며 눈에 익은 것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느 쪽으로 들어서도 모두 막다른 길뿐이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결국 나는 탐색을 멈추고 모든 일원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한 뒤 손전등을 집어 들고, 내가 직접 걸어가 보고 길을 찾으면

신호를 주겠다고 일렀다.

그러나 사실 내가 진짜로 한 일은, 무릎을 꿇은 뒤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었다. 내가 어떤 각오로 준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소년들을 사랑하는지, 우리와 동행해 준 아버지들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지를 나는 정성껏 기도로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도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을 털고 일어나 어둠 속에 손전등을 비추면 곧바로 가야 할 옳은 길이 보일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변한 게 없었다.

잠자코 지평선을 향해 최대한 멀리 불빛을 비춰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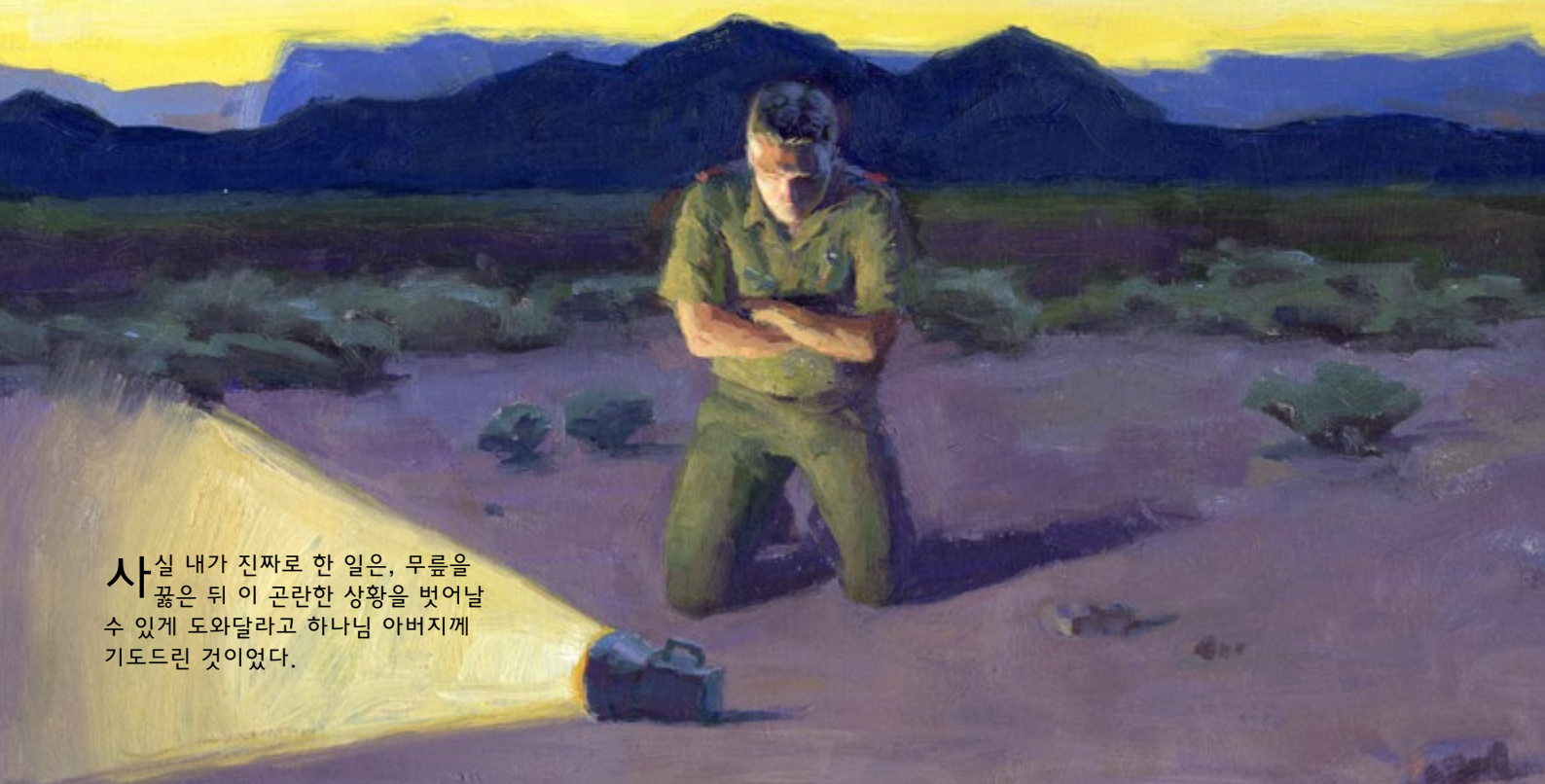
마찬가지였다.

믿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가 무섭게 길이 보일 것으로만 믿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절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으로만 믿었는데 말이다.

이제 나는 실망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하는 두 아버지와 “아직 멀었어요?”라고 물으며 기대에 가득 차 소란스러운 청남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스무 번이나 이 길을 와 봐서 아는데, 분명 이 근처에 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저 그 길이 보이지

**사**실 내가 진짜로 한 일은, 무릎을 꿇은 뒤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었다.



않을 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마을로 들어가 모텔에서 방 두 개를 빌리기로 했다. 기운을 내서 토요일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대로 모닥불을 지펴서 저녁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서 보았던 동네 피자 가게로 갔다.

피자는 맛있었고 청년들은 즐거워했다. 그렇지만 나는 모텔에서 자고 저녁 식사 비용을 들이게 된 것에 대해 여전히 자책하는 마음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의문스러워하고 있는데, 불현듯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피자 가게의 문을 열었다. 밖에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심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북서쪽으로는 번개도 치고 있었다. 바로 조금 전 내가 응답을 구하며 기도를 드리던 그쪽 방향에서 말이다. 순간, 나는 영을 느꼈고 주님께서 진정 내 기도 응답하셨음을 깨달았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그 먼지 자욱한 미로 같은 길로 향했고, 나는 전날 밤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그 갈릴길을 단번에 찾아 들어갔다. 이제 나는 때로 기도의 응답은 부정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어김없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안다. ■

토니 로저스, 미국 유타 주

## 절전 다시 시작 시스템 종료



나는 다시 시간적 여유를 찾았다. 다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놀아 줄 수 있었고, 책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

로그아웃



## 우선순위 바로잡기

**가** 족 블로그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더 색다르고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느라 내 여가 시간을 온통 빼앗기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읽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을 썼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경전 공부도 다른 읽을거리도 제쳐 두고 오로지 블로그만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그전만큼 책을 읽고 싶지도 않았으며, 생활에서 영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으며 아이들과 보내야 할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허비하고 있었다.

블로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블로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기에 참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블로그 때문에 내게 튼튼한 영적 근간이 되어 줄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블로그를 매일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블로그도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고 다른 책을 다 읽은 뒤에 컴퓨터 앞에서 여가를 보내도 좋다는 규칙을 세웠다. 제일 중요한 일들을 끝내고 나면 보통은 블로그에 쓸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다시 시간적 여유를 찾았다. 다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놀아 줄 수 있었고, 책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

며칠에 걸쳐 우선순위를 바로잡자 나는 다시 생활에서 더 풍성한 영을 느꼈다.

매일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먼저 한다면, 매일 점점 더 큰 영을 느낄 수 있음을 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 잡지를 비롯한 좋은 글을 읽으며, 영원을 두고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낼 때, 나는 내가 더 좋은 아내와 엄마, 그리고 주님 교회의 더 훌륭한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안다. ■

지니 데이비스, 미국 텍사스 주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선지자가 전하는 충실함의 원리

**저**는 20여 년 전에 남미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후 20년 동안, 그때 그 선교사들이 삶에서 아주 기쁜 일도 겪고 가슴 아프게 참담한 일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성전에서 행복하게 인봉받고 자녀들을 의롭게 양육하여 선교사로 내보내며, 교회의 보조 조직 및 신권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저활동 회원이 되거나, 결혼 후 이혼을 하거나, 교회에서 파문된 이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을 달리했다면 그 몇몇이 개인적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충실하게 남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 원리를 제안하겠습니다.

## 1 꾸준히 간증을 키운다

영으로 충만한 선교사 시절의 경험은 평생 삶을 축복할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이 신앙의 토대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활동 회원이 된 귀환 선교사 한

**충실하게 남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명을 접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앙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교사 시절 때처럼 기도하고 물문경을 읽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셉 스미스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이 질문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 외설물에 빠져 있는가?”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신앙을 잃은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 간증이란, 성신이 우리 영혼을 향해 복음과 회복된 교회가 참되다고 증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지 못하면 삶에서 영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유혹을 견딜 힘이 줄어듭니다. 죄를 지어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성신은 떠나갑니다. 영이 끊임없이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사리 현재 자신은 간증이 없으며 전에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간증은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자양분은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경전(특히 물문경)을 공부하며 교회에서 봉사할 때 공급됩니다.



## 2 살아 있는 선지자 및 사도의 권고를 따른다

이제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충실한 가정을 일구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선지자의 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언급하고 1995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발표한 이 선언문에 있는 중요한 부분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그분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입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하나님은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그런 뒤 주님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 때 현세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5~6)

이 힘겨운 시기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 3 성전에서 인봉받고 성약을 지킨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분들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sup>1</sup>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에 의해 결혼하여”<sup>2</sup> 성전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인봉되지 않으면 승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승영을 얻을 자격을 갖추려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들어가야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성약을 지킬 때,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과 모든 일에서 영광을 상속[받으며]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됩니다.(교리와 성약 132:19. 또한 7절 참조)

성전에서 인봉되면 다음 생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받게 되며, 이생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별된 아들 또는 딸로서 이 시기에 지상에 내려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자신의 성전 결혼이 포함됩니다.



## 4 하나님을 도와 그분의 영의 자녀들을 지상에 데려온다

가족 선언문에는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오늘날에는 한 세기 전과 비교해 가족의 규모가 작습니다. 후기 성도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를 갖기를 미루거나 자녀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유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졸업을 먼저 해야 해, 수입을 늘리려면 더 나은 직장을 구해야 해, 아이가 있으면 결혼 생활의 재미가 모두 사라질 거야 등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줄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현세적인 것들을 빠짐없이 갖춰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은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젊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시고자 예비해 두신 만큼의 영의 아들과 딸에게 그 태어날 권리를 선사하십시오. 사실, 이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힘입어, 변명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만의 영원한 가족을 꾸리십시오.

## 5 외설물에 빠지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한편, 가족 선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서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외설물에 빠지거나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정신적으로 충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예입니다. 배우자가 외설물을 볼 때, 가장 친밀한 유형의 신성한 신뢰가 깨지고 맙니다. 순결한 배우자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결혼 관계의 확신과 신뢰도 무너집니다. 외설물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 수확물은 간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인봉받았으나 외설물을 보고 한 여성과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맺은 끝에 가정을 잃은 한 남성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에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거기에는 제가 힘을 실어 주지 않는 한 사탄은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내용이 있었습시다. 저는 사탄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 주었고, 사탄은 서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그 힘을 앗아가더니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제 삶을 무너뜨렸습시다.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시다. 그러나 그 사랑도 제가 사탄에게 내어 주고 제 삶을 파괴하도록 허가한 그 힘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였습시다. 교회의 가르침은 저희 가족이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하나님께 인봉되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을 보여 주었습시다. 제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저는 그러지 못했습시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 6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한다

가족 선언문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가족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아내와 제가 젊은 부부였을 때, 저희는 매일 가족으로서 함께 경전을 읽는 습관을 굳히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큰 아이가 일곱 살쯤이 되어서야 드디어 가족 경전 읽기는 매일 당연히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아침에 제일 먼저 경전 읽는 일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큰 아이들에게 이 습관이 자리잡히자, 어린 동생들도 커 가면서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세미나가 있었을 때는 경전 읽기를 아침 6시 이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매일 가족 경전 읽기를 하고, 가족 기도를 하고,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고 성전 결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등 자기 가족만의 의로운 전통을 세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있습니다.

## 7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존중한다

가족 선언문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중요한 점 몇 가지도 권고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면에서 자신이 배우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부가 화합하여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가르쳤습니다.

동등한 동반자 관계란 말 그대로 동등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자녀를 양육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8 구주를 따르기 위해 도덕적 선택의지를 발휘한다

20년 후, 혹은 20세기 후에 어디에 있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영원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구주의 속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에서 구속되었[고]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즉 [사람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니파이후서 2:26~27; 강조체 추가)

사탄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는가를 이유로 우리를 증오합니다. 그는 우리도 자신과 같이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시며, 필요하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를 따를 것을 선택할 때, “이생에서는 기쁨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sup>3</sup>

## 9 끝까지 견딜 신앙을 기른다

주님께 돌이키면 신앙이 생깁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최근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만큼 밝습니다.”<sup>4</sup> 여기서 말하는 신앙에는 모욕, 배신, 실망 등 모든 장애를 견디고 극복할 신앙도 포함됩니다. 견뎌 내겠다는 신앙은 여러분의 운명, 즉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합니다.

## 10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응시킨다

여러분이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며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셨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임하신 모습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게 지키고자 소망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위대한 대업에 …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진전하고 물러서지” 맙시다. “… 용기를 [냅시다.]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갑시다. “…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칩시다.(교리와 성약 128:22, 24)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바칠 수 있는 헌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순응시키는 것, 즉 여러분 개인의 뜻과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마련했던 *Lectures on Faith*[신앙 강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일으킬 충분한 권능이 없다.”<sup>5</sup>

우리의 선택의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로서 바칠 수 있는, 진정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뜻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므로써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구주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얼마나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시키며, 얼마나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고, 얼마나 영의 음성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행복, 성공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

2012년 5월 1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Where Will You Be in 20 Years? [20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http://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강조체 추가.
2. Bruce R. McConkie, “Agency or Inspiration?” *New Era*, Oct. 1975, 38.
3. Gordon B. Hinckley, *Caesar, Circus, or Chris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Oct. 26, 1965), 8; see also Russell M. Nelson, “Spiritual Capacity,” *Ensign*, Nov. 1997, 16.
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5. *Lectures on Faith*(1985), 69.

# 구하라

야고보서 1:5~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이 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부 청남 회장인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와 본부 청녀 회장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의 의견을 들어 보자.

이 구절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스카슨 자매:** 주님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할지 아십니다. 우리가 상호 향상 주제를 통해 한 해 동안 일어나는 문제들의 답을 얻고, 이 주제가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해답이 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6절을 올해의 주제로 삼는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그 장소에는 영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모로 연결되는 곳이 많으므로 저희는 모두 이 구절이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구절이 되리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 교회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바로 이 구절을 읽고 성스러운 숲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 구절이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셉 스미스의 명성과 교회 역사에 관해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삶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언 형제:** 오늘날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있으며, 질문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온갖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이 있기에 신앙에 관한 질문의 답을 얻고자 찾아볼 자료도 넘쳐납니다. 이 핵심적인 성구는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은 과정을 보여 주며, 우리도 이 모범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야고보서 1장 5~6절을 자신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스카슨 자매:** 이 경전 구절에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는(야고보서 1:6) 정곡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언 형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도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 속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자, “글쎄요, 알게 되어서 좋기는 한데...”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스카슨 자매:** 의로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기도를 활용하는 법에 관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스카슨 자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잊지 않게 됩니다. 소홀히 하지도 않게 됩니다. 야렛의 형제가 그랬습니다.(이더서 2:14 참조)

**오언 형제:** 더러 기도하기를 잊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과 멀어질 것입니다.

**오스카슨 자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항상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의미 있는 기도를 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오스카슨 자매:** 특별히 하나님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얻은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기도는 제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듣고 받는 일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더 많이 할수록 더 잘 익히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응답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오언 형제:** 어린 시절 무언가를 꼭 알고 싶을 때면, 저는 첫번째 시현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해냈어. 난 엄청난 시현은 필요 없지만 응답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신앙으로 그 모범을 따랐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소리 내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모범을 따름으로써 저는 여러 번 개인적인 계시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경전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언 형제:**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기도의 모범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작 열네 살이었던 그는 혼란을 느끼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첫번째 시현은 조셉 스미스가 무릎을 꿇은 순간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전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을 찾았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2) 이 구절은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고, 그는 그 구절대로 행했습니다. 진정한 의도로 기도했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2017년 한 해 동안 이 성구를 통해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



#### 온라인 자료

**할** 동 또는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또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lds.org/go/11752](https://www.lds.org/go/11752)에서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와 관련된 미술, 음악 및 추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구하라

야고보서 1:5~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5~6

# 기도할 때 얻는 다섯 가지 약속

칼리사 크래머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을 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때로는 머리를 숙이고 팔짱을 낀 채 단순하고 진지한 몇 마디 말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사하지 않은가? 다음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약속 혹은 축복이다.

## 1

### 이겨 낼 힘

우리는 인간이기에 신체적, 정서적, 영적, 정신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나약함을 느끼기도 한다. 경기에 나갈 때, 시험을 볼 때, 또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심지어 영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것이라도* 이겨 낼 힘을 준다.

니파이가 말했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신다.(니파이전서 3:7) 우리가 구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분께서는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유혹을 이겨 낼 힘을 얻고자 기도하자. 시험을 앞두고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공부할 힘을 얻고자 기도하자. 달려도 지치지 않을 힘을 얻고자 기도하자. 힘을 얻고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 2

### 용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다. 주님의 권능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이다.

기도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더 큰 죄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도움이 필요겠지만, 주님께 드리는 개인적이고 진지한 기도는 언제나 용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든 말이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 3

## 지식과 인도

여러분은 기도에 약속된 첫 번째 축복 중 하나로 개인적인 계시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특히나 새로운 상호 항상 모임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말이다. 조셉 스미스는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할지 몰라서 성스러운 숲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으며, 상당히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계시는 선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험일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한다.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이 주어지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



# 4

##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소망

이것을 축복이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여기시지 않는 어떤 것을 원하고 소망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개종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얻고자 기도한다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점점 같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대개 개종은 지속하는 과정이며 강력하거나 극적인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점진적으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동기와 생각, 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8쪽)



# 5

## 평안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약속된 축복 중 하나는 성신을 통한 평안과 위안이다. 결국, 성신은 보혜사라고 불린다. 평안은 고난의 시기에도 임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기억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구하면 결국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기도를 활용하여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하자. 그러나 진지한 기도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에는, 역시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 5 가지 질문

마거릿 윌든

**기**도를 한 후 기다렸지만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다. 그러나 응답이 오는 시기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문해 보면 좋을 몇 가지 질문들이다.

## 2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과학 시험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자. 단지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겠는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험공부를 할 때는, 내가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힘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큰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해냈던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모범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앨마서 17:3)

## 1

### 나는 응답받은 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어지는 응답이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 응답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은 바 있다. “내가 네게 주려 하는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이는 이 율법을 계시 받은 자는 모두 반드시 이에 순종해야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3) 어떤 경우에라도(응답이 가지 말라는 것일지라도) 순종하겠는가?



### 3 응답을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므로, 그분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도 모른다. 교리와 성약 6편 14절에서 “네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응답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때로 기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는 등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귀 기울여 들을 시간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9쪽)

### 4 나의 바람은 의로운가?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주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한다고 가르치셨고(제3니파이 18:19), 이는 옳은 것을 구하여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 바람을 구주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라고 자문해 보자. 내 바람이 이기심이나 다른 어떤 불의함의 한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구주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바라길 원하시는지 알고자 기도해야 한다.

### 5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옳은 것을 소망하는 것과 더불어 시기도 적절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웅대한 계획을 준비해 두셨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그분의 시간표와 다소 다를 때가 있다. “나의 말은 확실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리니, ... 그러나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1~32) 즉, 상처가 나으려면, 또는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으려면 좀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일이 이생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이다.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응답을 구하는 가운데 만일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구한다면 언제나 필요한 응답을 찾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13) ■

글쓴이는 미국 뉴욕 주에 산다.

# 하나님께 구하라

작사 작곡  
닉 데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 = 156-170

9

1. 수 말씀은 - - 믿음 들 - - 여 기 금 저 기  
2. 말 씀이 - - 자 라 - 나 - 조 금 씩 분

9

Chords: Eb, Ab, Cm, Ab, Eb, Bb

14

- 찾 아 봐 도 - - 나 무 엇 을 -  
- 명 해 지 니 - - 시 간 과 -

14

Chords: Eb, Bb, Eb, Ab

19

- 믿 을 까 - - 방 범 은 단 - 한 가 지 -  
소 망 으 로 - - 그 모 든 혼 란 사 라 저 -

19

Chords: Cm, Ab, Eb, Bb

24 

(2절) 나 구 하 면 - 응 답 하 시 - 리 - 무 릎 꿇 고 구 - 하 면



28

- 눈을 감 - 고 속 삭 이 - 면 - 그 분 속 삭 이 - - 시 리 - 상 처 받

28 Eb Eb/G Ab Eb Bb Eb Eb/G



33

- 을 때 치 유 - 를 - 겸 손 - 할 - 때 응 - 답 을 -

33 Ab Eb Bb Cm



37 **To Coda**  
(세 번째)

지 혜 가 부 - 족 하 거 든 - 구 - - 하 라 -

37 Ab Eb Bb Eb



41

과 거 엔 세 - 상 속 에 서 길 잃 고 - 헤 땀 지 만 이젠 두

41 Ab Eb G





46

— 렵 지 않 아 — 또 바 람 불 — 어 온 대 도

46 Cm Bb/D Eb Ab

51

흔 들 리 — 지 않 으 리 진 리 안 — 에 굳 건 히 — 나 구 할 때

51 Eb/G Fm7 Eb/G Ab Bb

D.S. al CODA  
(25마디 ♯로)

57

CODA 구 — — 하 라 —

57 Bb Ab Eb Bb

62

62 Eb Eb/G Ab Eb Bb Eb

# 야고보서 1:5~6

야고보는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구하고 행해야 하며, 소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믿음으로 구하고”, *리얼리티*, 2008년 5월호, 94쪽.

###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하며,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린도전서 2:11)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 후히

후히[Liberally]—이 단어가 번역된 그리스어 어원은 “단순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남김없이 관대하게 주시는 것임을 내포한다.

###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겸손히 응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코 꾸짖지(비판하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나파이후서 26:33



###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약의 관능”, *리얼리티*, 2009년 5월호, 22쪽.

###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지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그런 축복들을 받기 위한 것이다.”

경전 안내서, “기도”, scriptures.lds.org.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교리 익히기의 선별된 구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천상의 순간

때로 천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다.

홀리 메건 로라 헌터

**언**젠가 청년 지도자들께서 진정 영을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특별한 순간에 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그런 순간을 “천상의 순간”이라는 기억하기 쉬운 짧은 문구로 말씀하셨다. 나는 “천상의 순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해의 왕국에서의 삶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순간은 꽤 여러 번 있었다.

청년 지도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바깥으로 나갔을 때였다. 나무 사이로 해가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고, 얼굴에는 햇살이 내리쬐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만끽하는 동안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렸다. 천상의 순간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침례를 받은 후에도 나는 천상의 순간을 경험했다. 침례를 집행한 후 남은 순서를 위해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동안, 친구는 내 손을 잡고서 지금 우리는 친구이고, 영원히 친구일 테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다!

일 년 남짓 시간이 흘러 침례탕 앞에 서서, 친구의 어머니가 침례의 물가로 들어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기쁨을 함께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천상의 경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마도 주님의 집인 성전일 것이다. 감사하게도 내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던 날은 부모님과 언니가 함께했다. 나는 증조할머니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고, 증조할머니가 행복해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천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음악을 듣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학교에 있는 시간에도 말이다. 가족 모두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던 어느 가정의 밤이 떠오른다!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다.

이런 천상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간증이 더욱 강해졌고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덕분에 훌륭한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고 복음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 복음대로 살기를 택한다면, 천상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과 행복, 평안과 사랑을 해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안다. ■

글쓴이는 스코틀랜드 노스라나크셔에 산다.



# 우리들 공간



일리아 나무 성전 사진: 미켈라 에스, 미국 플로리다 주

위: 하나님은 나와 내 자매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진. 자매 중 한 명은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케니아 알,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에서

## #TempleChallenge[성전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다

**나**는 2012년에 침례를 받고 브라질 이포메이아 지방부의 한 지부에 참석했으며, 2014년 이후로는 가족 역사에 흠뻑 빠졌다. 루츠테크(RootsTech)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엘 앤더슨 장로님이 자기 가족의 이름을 찾아 대리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권고를 듣고 시작된 일이었다. 나는 “두드리면” “열릴” 테니 헌신적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마태복음 7:7 참조)

이제 나는 더 많은 세대를 찾았고, 사진과 서류는 물론 무엇보다 가족의 일화를 더 많이 수집해 두었다. 정말 멋진 일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가족 역사에 있는 사진과 낱자를 넣어서 책도 한 권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회 회원이 아닌 여러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족은 영원하다는 간증도 나눌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거룩한 장소에 설 수 있었고,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며,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교회가 휘장 이편과 저편에서 행하는 구원 사업은 참되며, 이 사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증한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조상을 위해 침례를 베풀었던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 삶을 영원히 바꾸고자 소망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다. ■

클라우디오 클라우스 이세 장로, 에리조나 메사 선교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복음을 나누는 방법

**우**리의 믿음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가 옳다고 아는 일에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이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없이, 담대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가운데, 사랑 깊은 이해의 정신으로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신을 동반할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저활동회원들에게도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침서나 부름이나 훈련 모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교회의 훌륭한 회원들이 성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권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봉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오늘 성신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결심하고, 성신의 권능을 동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주가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분 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께서 모든 개개인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라게 된 것을 정말 감사에 여깁니다. 저는 복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중 보시거나 소홀히 여기시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나눌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자녀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기회를 찾고 활용하기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리 지, 미국 언론주

# 해답을 찾아서

왜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큰 죄인가?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9~10)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판단을 주님의 완전한 판단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가 놓인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며, 판단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주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완벽한 공의와 자비를 내리실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비극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고, 쓰디쓴 원한과 분노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끔 도와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얻는 깨달음을 칠십인 정원회의 케빈 알 던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주의 속죄는 회개해야 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또한 용서해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용서라는 치유의 연고”,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35쪽) ■

우울증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며, 우울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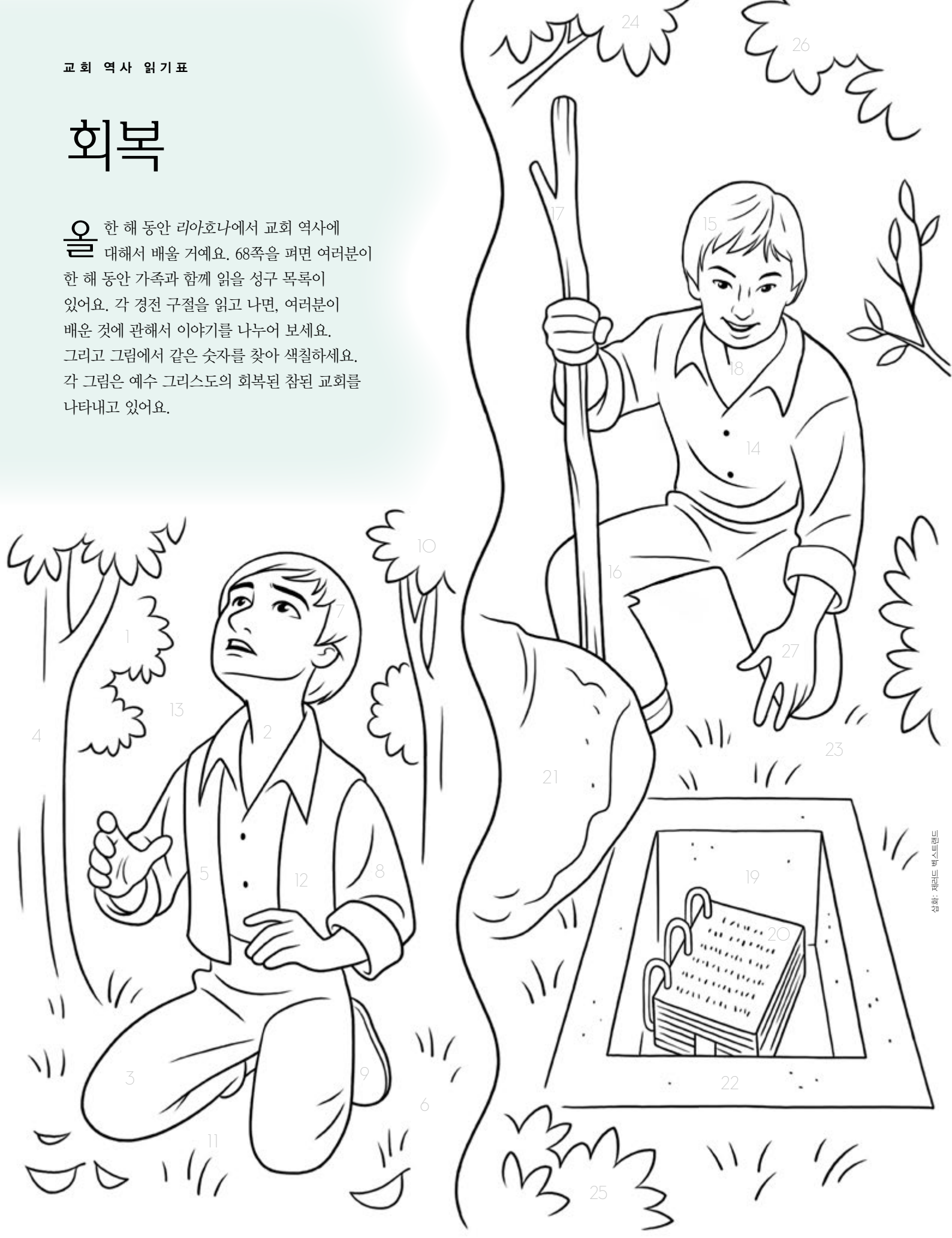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고 가족과 지도자,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있으면 위안과 기쁨,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심한 우울증이나 주요 우울 장애(MDD)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서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린드 장로는 극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잃지 않는다.
- 삶에 영을 불러오는 일을 한다.(기도, 경전 공부 등)
- 부모와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구한다.
- 신권 축복을 받는다.
- 매주 성찬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약속을 굳게 믿는다.
- 피로와 같은 스트레스 징후를 살피고 변화를 시도한다.
- 문제가 계속되면 훌륭하고 공인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에 대해 부모나 신권 지도자와 상의한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42쪽 참조) ■

# 회복

**을** 한 해 동안 리아호나에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68쪽을 펴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가족과 함께 읽을 성구 목록이  
 있어요. 각 경전 구절을 읽고 나면, 여러분이  
 배운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림에서 같은 숫자를 찾아 색칠하세요.  
 각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참된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37

36

38

29

30

28

31

35

40

39

32

34

33

41

49

51

50

44

48

46

43

47

45

42

52

## 성구 목록

여기에 적힌 경전 구절은 대부분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예요. 각 구절을 읽고, 66~67쪽에 있는 그림에 색칠하세요!

1. 조셉 스미스-역사 1:10~13	27. 교리와 성약 59:9~10, 15~19
2. 조셉 스미스-역사 1:14~17	28. 교리와 성약 64:9~11
3. 조셉 스미스-역사 1:30, 33~34	29. 교리와 성약 64:33~34
4. 조셉 스미스-역사 1:51~53	30. 교리와 성약 76:19~24, 40~41
5. 조셉 스미스-역사 1:66~69	31. 교리와 성약 78:17~19
6. 교리와 성약 1:37~38	32. 교리와 성약 81:5~6
7. 교리와 성약 2:1~2	33. 교리와 성약 82:3, 10, 14
8. 교리와 성약 4:1~7	34. 교리와 성약 84:46~47, 62
9. 교리와 성약 6:34~37	35. 교리와 성약 88:78~80
10. 교리와 성약 8:2~3, 9~10	36. 교리와 성약 88:118~120
11. 교리와 성약 10:5, 69	37. 교리와 성약 88:123~126
12. 교리와 성약 11:6~7	38. 교리와 성약 89:1, 18~21
13. 교리와 성약 13:1	39. 교리와 성약 90:15, 24
14. 교리와 성약 18:10~13	40. 교리와 성약 97:15~16, 21
15. 교리와 성약 18:15~16	41. 교리와 성약 98:11~12
16. 교리와 성약 19:16~19, 23~24	42. 교리와 성약 100:5~8
17. 교리와 성약 20:75~79	43. 교리와 성약 101:16, 32, 36
18. 교리와 성약 25:10~13	44. 교리와 성약 105:39~41
19. 교리와 성약 27:15~18	45. 교리와 성약 107:6, 8, 13
20. 교리와 성약 39:20~23	46. 교리와 성약 110:1~10
21. 교리와 성약 46:10~12, 32~33	47. 교리와 성약 119:4, 6~7
22. 교리와 성약 49:25~28	48. 교리와 성약 121:7~9, 46
23. 교리와 성약 50:40~46	49. 교리와 성약 121:41~45
24. 교리와 성약 51:13, 19	50. 교리와 성약 122:7~9
25. 교리와 성약 58:26~28	51. 교리와 성약 130:20~23
26. 교리와 성약 58:42~43	52. 교리와 성약 131:1~4

# 우리들 이야기



알렉산드라 엠, 10세, 미국 메릴랜드 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창조를 하셨어요. 저는 동물과 자연을 사랑해요.

새뮤얼 엠, 7세, 스페인 마드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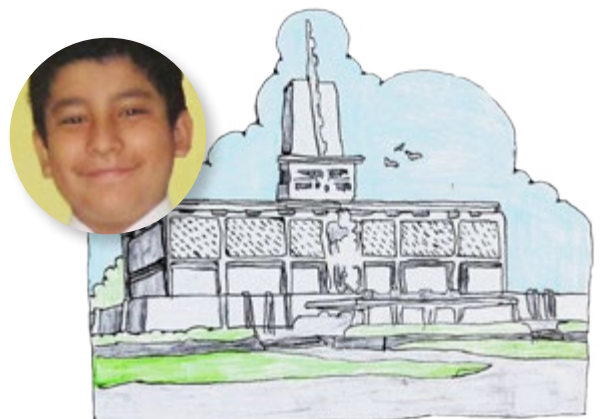


리시 엔, 5세, 스페인 마드리드



저는 성찬식과 주일학교에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는 것이 좋아요.

이언 에이, 5세, 멕시코 모렐로스



가족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영을 강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분은 "어린이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어요.(마태복음 19:14 참조)

에이토르 에이, 10세, 브라질 파라나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

“경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어린이 노래책,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두 명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들은 우리 가족을 가르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몰몬경 한 권과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 적힌 소책자를 주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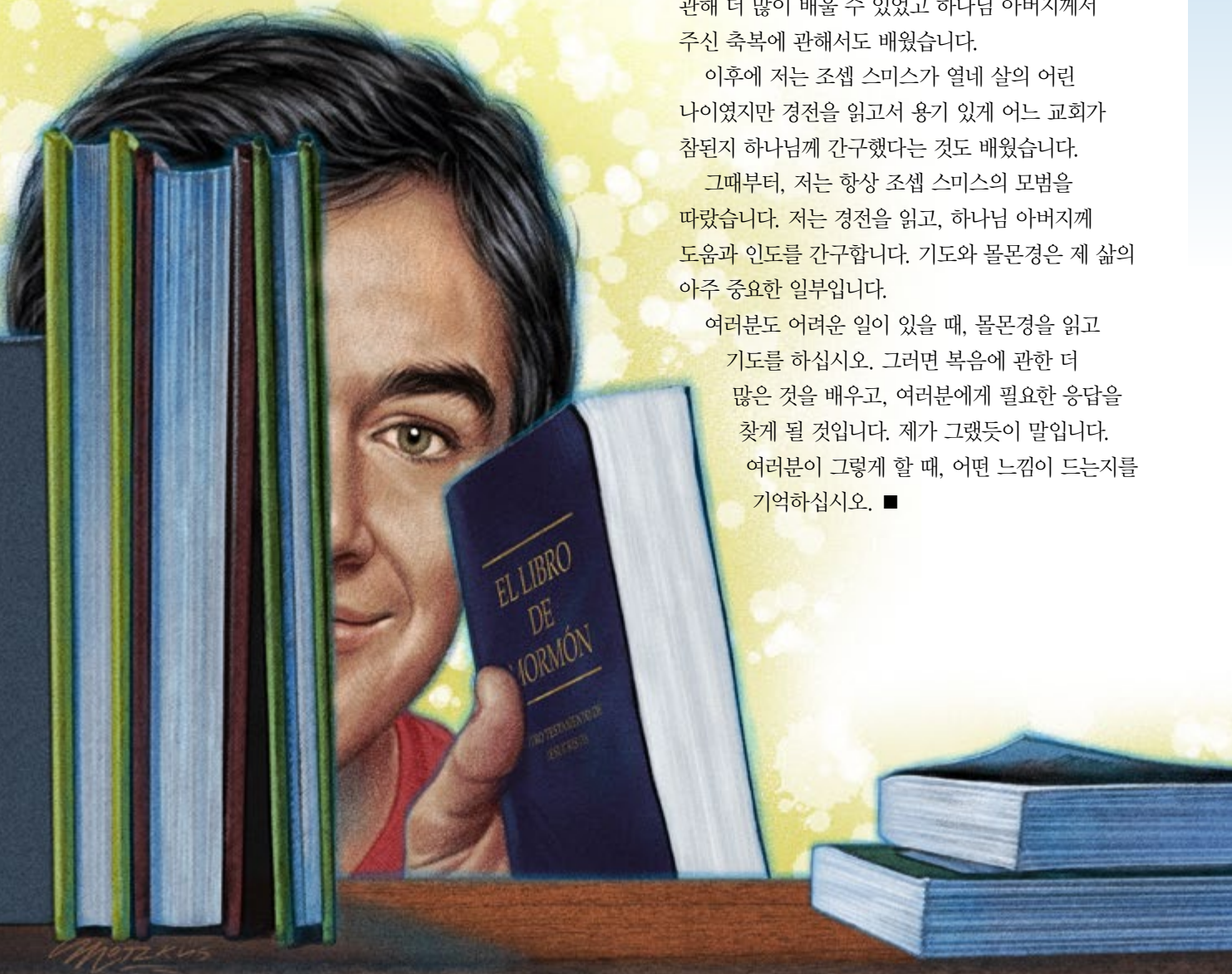
그 몰몬경과 소책자는 우리 집 책꽂이에 몇 년 동안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열여덟 살이었을 때, 책꽂이에 읽을 만한 책이 없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집어 들고 첫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후에 저는 조셉 스미스가 열네 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경전을 읽고서 용기 있게 어느 교회가 참된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상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과 인도를 간구합니다. 기도와 몰몬경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몰몬경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관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





# 민준이는 충분히 합당해요

켈리 헌세이커  
실화에 근거함.

“예수님은 우리 친구 곁에  
계시니”(어린이 노래책, 58쪽)

**민**준이가 창문 밖에  
있는 구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신문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도 위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한민국 서울의 늦은  
여름에 장마철이 시작된  
거예요.

민준이는 일요일에 입고 갈 옷 옆에  
우산을 갖다 놓았어요. “내일은 좀 일찍  
출발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낮은 지대에 있는 길이 물에  
잠기면, 더 먼 길로 돌아서 걸어가야  
한단다.”

“교회 건물은 괜찮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작년 장마철에는 지하층이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도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럼 오늘 밤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일  
교회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는 인사를 하고 자리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자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일찍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구름을 쳐다보았어요.

“신앙을 가지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아파트  
옆에 있는 언덕의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서서 한숨을  
돌렸어요. 공기가 너무 습해서 하얀  
셔츠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버렸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손바닥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어요.  
“느껴지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우산을  
펼쳤어요. 다음 계단을 오르려 할  
때쯤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계단이 잘  
보이지 않자, 민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 계속 노력하십시오

“복음의 참 좋은 점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다 것입니다. 늘 성공하지는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27쪽

계단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야!” 민준이가 미끄러져서 무릎을 꿇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쳤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몸을 기울여 민준이의 양복바지에 난 구멍을 보셨어요.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회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게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남은 계단을 모두 올라 위쪽 길에 들어섰어요.

“이 위에는 바람이 더 심하구나.” 할아버지가 우산을 꼭 움켜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간신히 우산을 들고 버틸 뿐이었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민준이의 우산이 뒤집혔어요. 그 바람에 우산이 찢어져 버렸죠. 민준이의 어깨가 풀이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 주셨어요. “내 우산을 같이 쓰자꾸나. 거의 다 왔단다.”

하지만 계속 내리는 비를 들어서 우산 하나로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교회에 거의 다다르자,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시작했나 봐요!” 민준이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유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머리카락은 물에 잔뜩 젖었고, 양복바지는 찢어져 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였죠. 민준이는 현관에서 주저하다가 계단을 도로 내려와 말했어요.

“저...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괜찮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젖은 데다가 더러운걸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바라보시고 울타리에 걸려 있는 우량계(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를 쳐다보셨어요.

“민준아, 비의 양을 재는 방법은 간단하단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지 잴 수 있겠니?”

민준이는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진흙투성이 신발에, 무릎은 굽히고, 머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너 자신을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잘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너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그분의 방법으로 네가 얼마나 합당한지 재어 보렴. 다 잴 수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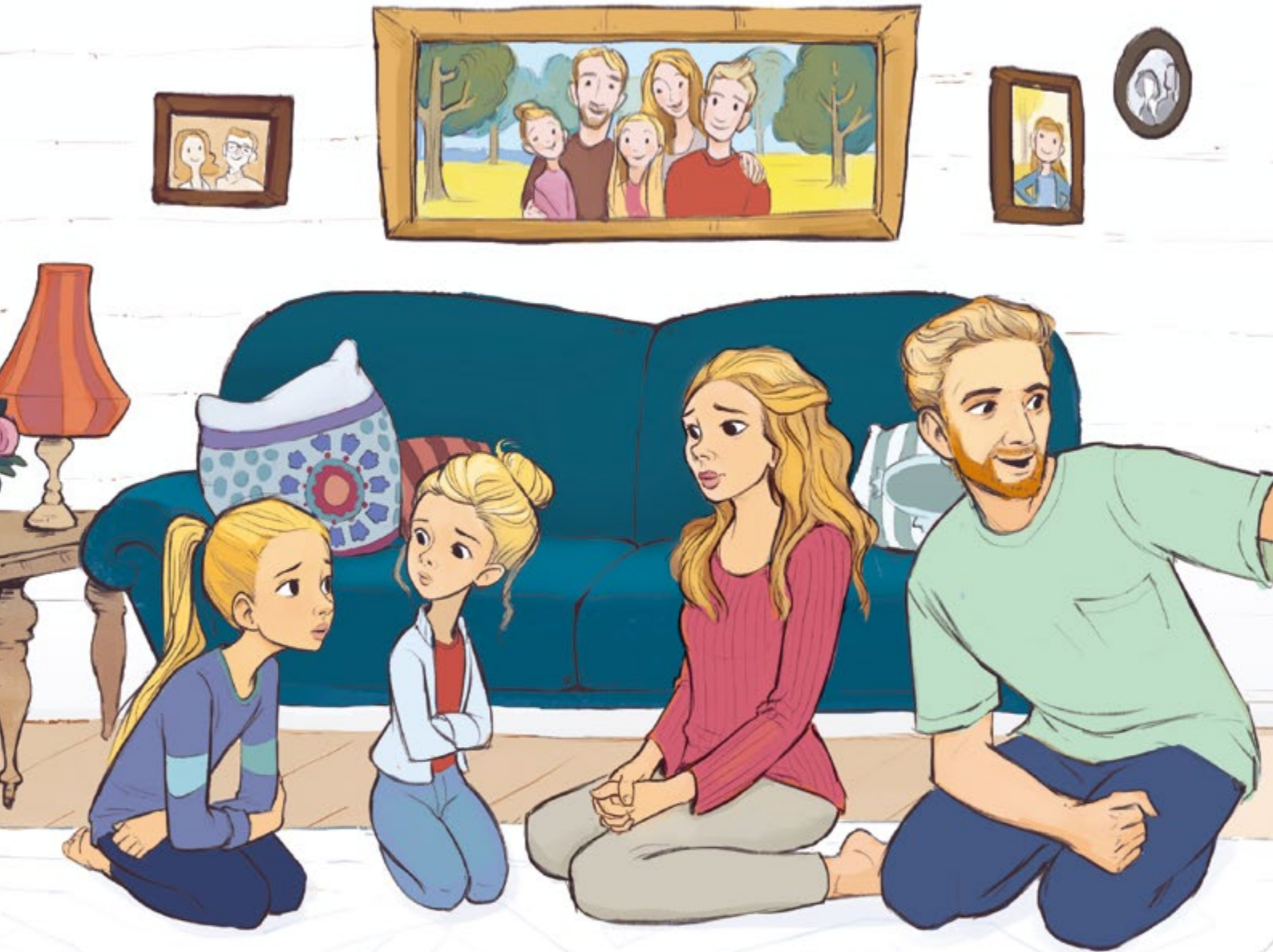
민준이도 우량계를 쳐다보았어요.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눈금이 올라가고 있었죠. 민준이는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구주를 사랑하는지, 또한 구주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 건물로 들어갔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 에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



줄리 코널리어스-황  
실화에 근거함

“인간이 선택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찬송가, 175장)

**카**리의 가족은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모여 앉았어요. 모두 경건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아빠는 카리의 동생 리브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감사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아빠가 리브를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에릭을 위해 기도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가 거들었어요. 엄마는 가족이 에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켰어요.

에릭은 카리의 오빠예요. 에릭이 대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에릭과 카리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카리는 오빠와 함께했던 재밌는 모든 일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에릭은 엄마 아빠에게 더는 교회 회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카리와 카리의 가족은 너무 놀랐고 슬펐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에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에릭이 성신을 느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아빠는 에릭의 마음이 밝아져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엄마는 에릭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에릭을 도와서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자주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했던 모든 기도를 생각해 보니, 카리는 조금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에릭을 교회로 다시 데려오시지 않는 걸까요?

결국, 리브가 기도하려고 입을 연 그때, 카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카리가 불쑥 내뱉었어요. 모두 놀란 눈으로

카리를 쳐다보았지만, 카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죠.

잠시 동안,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리야.” 아빠가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 다녀왔을 때, 책가방은 잘 걸어두었니?”

“네?” 카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카리의 책가방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카리가 현관 쪽을 힐끗 돌아보니 카리의 가방은 리브의 가방 옆에 걸려 있는 대신, 바닥에 던져진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엄마가 가방을 걸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니?”

“네.” 카리가 대답했어요. 카리는 고개를 숙여 무릎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가방을 걸어 놓으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니?”

“네.” 카리가 투덜댔어요. 카리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카리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한 걸까요?

“우리가 에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문제는 에릭이 지금은 듣지 않는다는 거지. 에릭이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거야. 네가 엄마가 가방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고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너는 엄마가 가방을 걸라고 할 때 앞으로도 계속 무시할 거니?”

“아니요, 아닐걸요.” 카리가 대답했어요.

“언젠간 내 말을 듣겠지!” 엄마가 카리에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카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아마 에릭 오빠도 언젠가는 귀를 기울이겠네요.” 카리가 덧붙였어요.

엄마는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셨지요.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이란다. 아마 에릭은 아직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 같구나.” 카리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은 리브가 기도를 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리브는 에릭이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리브가 기도를 하는 동안, 카리는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리브가 가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동안, 카리는 그 받은 축복들에 추가할 또 한 가지 축복이 생각났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기도를 마쳤을 때, 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릭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분은 카리도 절대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도요.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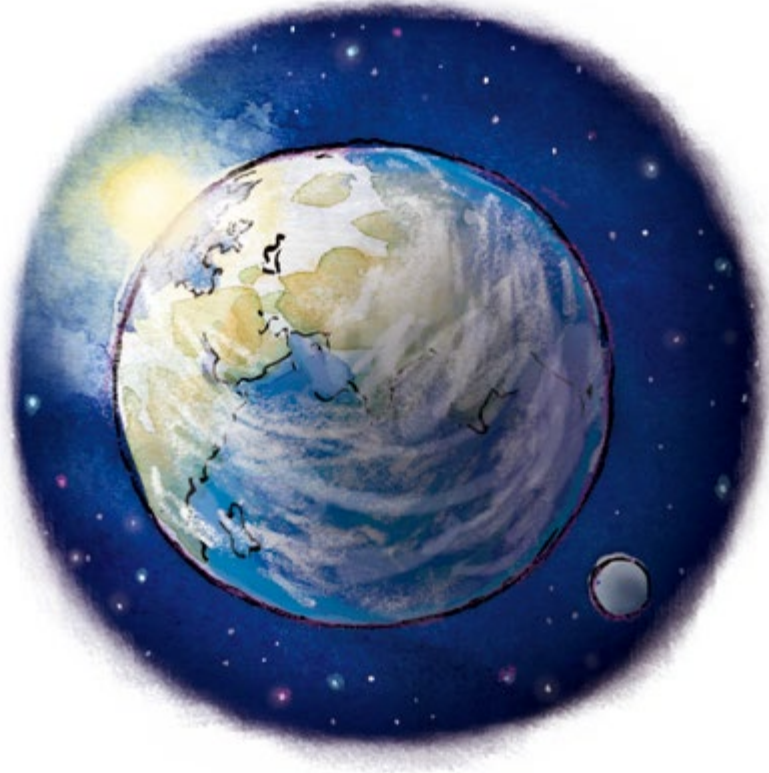
### 선택의지란 무엇일까요?

**선** 택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



#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김 웨브 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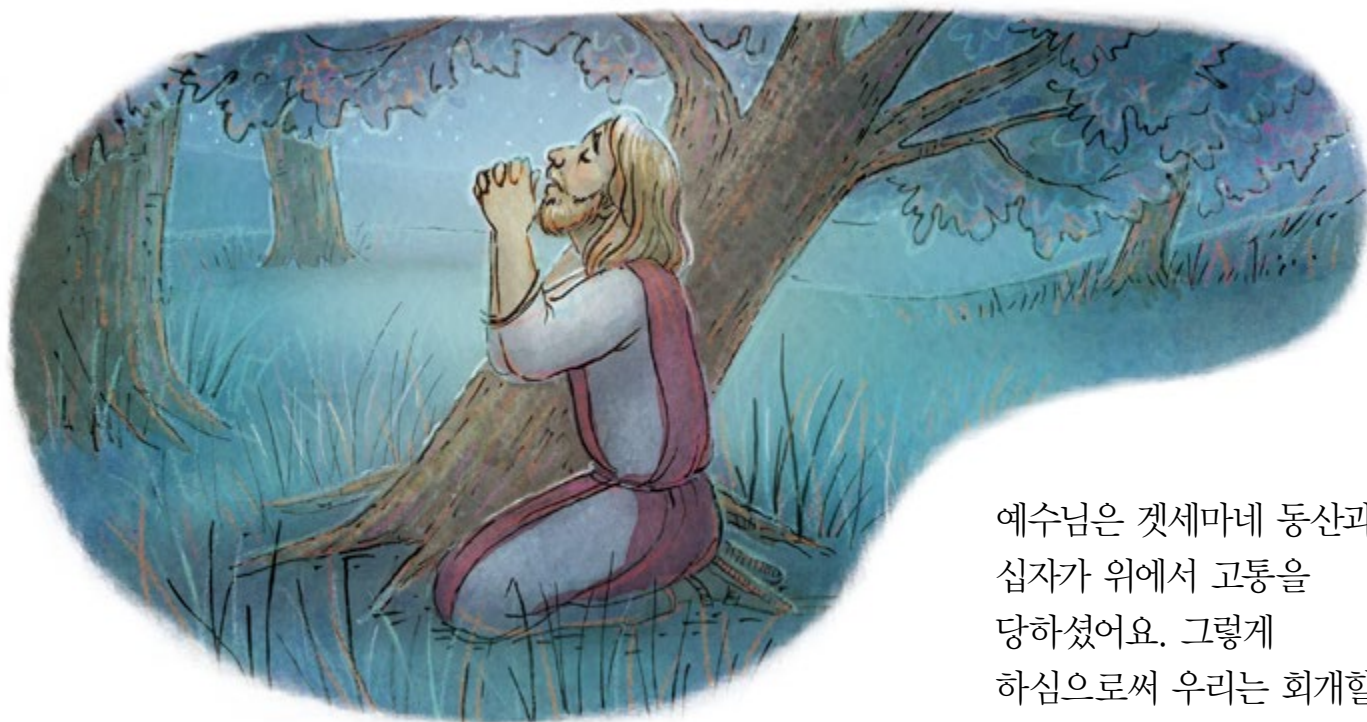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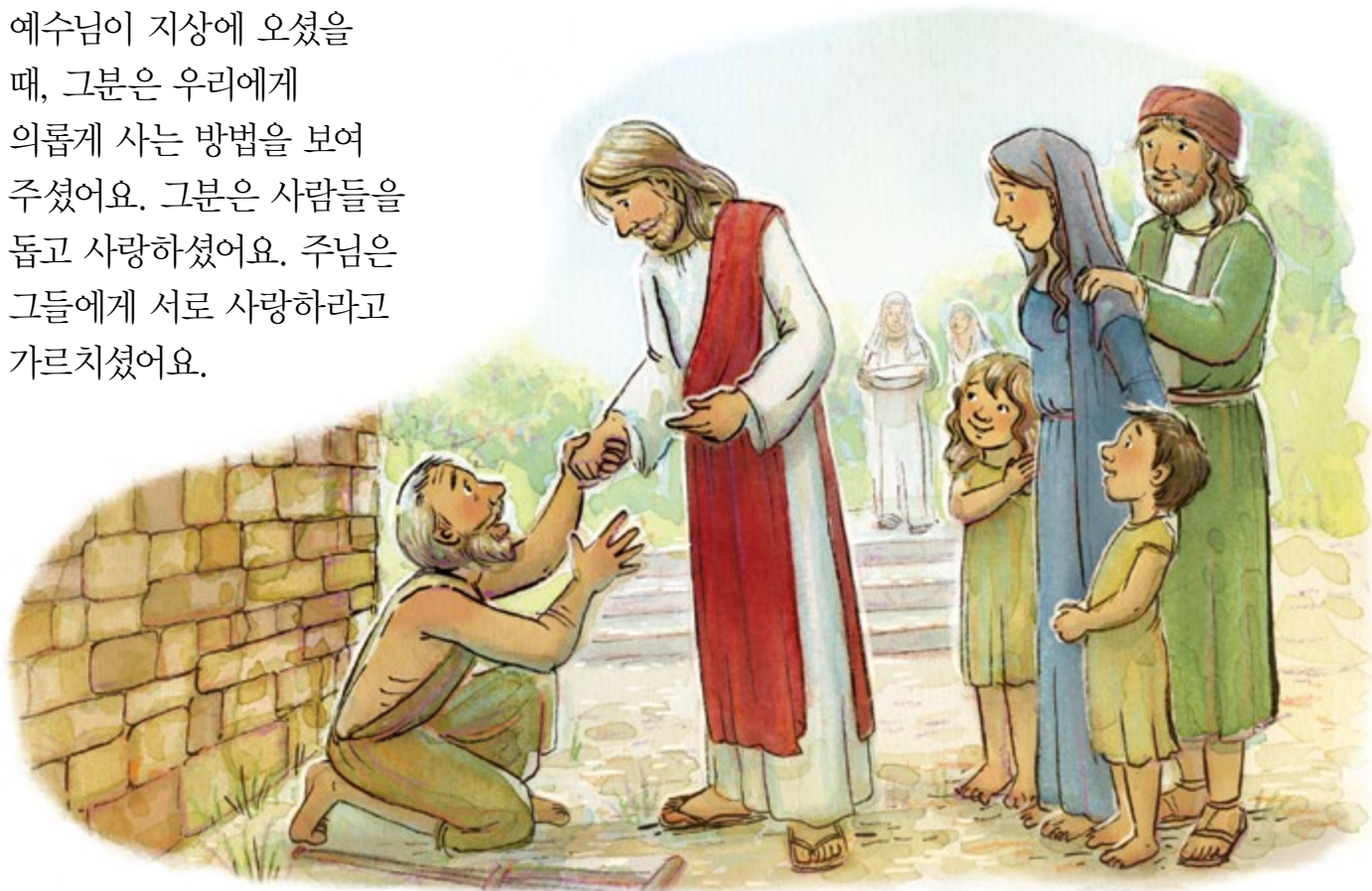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과 맏형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행복했고,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 지구를 만드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때때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구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방법을 보여 주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죽은 후에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관해 배울 때, 저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

#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예요



삽화: 아이프렐 스토트





휴 비 브라운  
(1883~1975)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법리적 대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 브라운 형제는 한 영국 하원 의원의 초대를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벌였다. 1955년 10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한 말씀, "The Profile of a Prophet" 에서 브라운 회장은 그가 나눴던 대화를 묘사했다. (speeches.byu.edu 참조)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도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제 믿음이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다는 말씀입니까?”

“세계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증거가 나와 있지요.”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그리고 기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쳤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교류는 바로 그때 절정에, 정점에 달했었죠.”

“의원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율법교사이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다소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나사렛



예수와 대화한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시대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음을 진지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기독교 시대 첫 세기 직후 중단되었죠.”

“왜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께서 권능을 상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적인 말씀이군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더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인간사에 더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한다면, 제가 보기에 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과학에서 것처럼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있으니 더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임박한 전쟁을 생각해서인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운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고, 남은 것은 인간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첫번째 시현,  
조르제 코코 산탄젤로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 청년 성인



44쪽

### 선지자가 전하는 **충실함**의 원리

미래에 충실하게 남아 있으려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여기 열 가지 원리를 소개한다.

## 청소년

### 201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가? 기도에 대한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공부해 보자.



50쪽

## 어린이

### 회복

교리와 성약에 더 친숙해지기 위해 이 활동들을 해 보자.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14441 320 1